

1. 다음 전시회에 전시될 유물로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1점]

□□ 박물관 특별전

○○○ 시대 사람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다

약 1만 년 전 빙하기가 끝나면서 나타난 환경의 변화 속에서
○○○ 시대 사람들은 새로운 도구와 기술을 개발하고 농경을 시작
하였다. 이 시대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다양한 유물로 만나보자.

기간: 2016년 ○○월 ○○일 ~ ○○월 ○○일
장소: □□ 박물관 특별 전시실

<보 기>

① 가, 나 ② 가, 다 ③ 나, 다
④ 나, 라 ⑤ 다, 라

정답: ①

* 신석기 시대의 유물

1만 년 전(기원전 8000년경) 마지막 빙기가 끝나며 신석기 시대가 시작되었다. 신석기 시대 유적은 한반도 전 지역에 고루 퍼져 있으며, 주로 큰 강 유역이나 해안 지역에서 발견된다.

신석기 시대 유적(서울 암사동, 부산 동삼동 등)에서 발굴된 유물에는 간석기와 낚시, 바늘 등의 뼈 도구가 있다. 그리고 빗살무늬토기(아가리가 넓고 밑이 뾰족)가 널리 사용되었다. 이보다 앞선 토기로 이른 민무늬 토기와 덧무늬 토기 등이 있다.

신석기 시대 사람들은 강가나 바닷가에 살면서 뼈낚시, 그물 등을 가지고 물고기를 잡거나 조개를 캐었고, 돌창, 돌화살 등으로 사냥을 하였다. 한편, 식물의 열매나 뿌리를 채취하여 먹는 생활을 하다가, 뒤에는 농사를 짓고 가축도 기르게 되었다.

황해도 봉산 지탑리와 평양 남경의 유적에서는 탄화된 좁쌀이 발견되는 것으로 보아 신석기 시대에 잡곡류를 경작하였음을 알 수 있다. 돌괭이로 땅을 일구고 조, 피 등을 재배하여 돌낫, 뼈낫 등으로 추수를 하였으며, 돌갈판에 갈돌로 곡식을 갈아서 음식을 만들어 먹었으며, 가락바퀴(방추차)로 실을 뽑고, 뼈바늘(골침)로 옷을 지어 입기도 하였다.

신석기 시대 사람들은 땅을 파고 그 위에 지붕을 씌운 원형의 움집에서 살았다(양양 오산리 유적이 유명). 그리고 같은 핏줄의 씨족들이 모여 마을을 형성하고, 나아가 몇 개의 씨족이 모여 부족을 이루었다. 즉, 이들은 구석기 시대 사람들과 달리 정착 생활을 하기 시작하였다. 이들 사회에서는 경험이 많은 부족장이 농사, 사냥 등 생산 활동을 지휘하였다.

㉠ 갈돌과 갈판

㉡ 가락바퀴

㉢ 미송리식 토기, ㉣ 비파형(요령식) 동검은, 북방식(탁자식) 고인돌, 거친무늬 청동거울 등과 함께, 청동기를 기반으로 나타난 우리 민족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의 세력 범위를 보여주는 유물이다.

2. 밑줄 그은 '왕'의 업적으로 옳은 것은?

[2점]

고구려가 군사를 동원하여 공격해 왔다. 왕이 이를 듣고 패하(賁訶) 강가에 군사를 매복시키고 그들이 오기를 기다려 급히 치니 고구려 군사가 패하였다. 그 해 겨울, 왕이 태자와 함께 정병 3만 명을 거느리고 고구려에 침입하여 평양성을 공격하였다. 고구려왕 사유가 힘을 다해 싸우다가 화살에 맞아 사망하였다.

- 「삼국사기」 -

- ① 익산에 미륵사를 창건하였다.
- ② 신라를 공격하여 대야성을 함락시켰다.
- ③ 동진으로부터 전래된 불교를 수용하였다.
- ④ 사비로 천도하고 국호를 남부여로 고쳤다.
- ⑤ 고흥으로 하여금 서기를 편찬하게 하였다.

정답: ⑤

* 백제 전성기를 이끈 근초고왕의 업적

백제는 4세기 중반 근초고왕(346~375) 때에 크게 발전하였다. 이 때의 백제는 마한세력을 정복하여 전라도 남해안에 이르렀으며, 북으로는 황해도 지역을 놓고 고구려와 대결하여 평양성까지 쳐들어가 사유라고 불리우는 고국원왕(331~371)을 전사시켰다. 또, 낙동강 유역의 가야에 목라근자를 보내어 지배권을 행사하였다.

또한 중국의 동진, 가야, 왜와 외교 관계를 맺고 고구려를 견제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황해를 건너 중국의 요서, 산둥 지방과 일본의 규슈 지방에 진출하여 활동 무대를 해외로 넓혔다(고대 해상권 형성: 서해 직항로 개척).

이와 같은 근초고왕의 업적에 힘입어 왕권이 전제화되어 부자 상속에 의한 왕위 계승이 시작되었으며, 박사 고흥이 역사서인 '서기(書記)'를 편찬하였다(375). 그러나 현재 전해지지 않는다.

① 서동 설화의 주인공인 백제 무왕(600~641)은 634년 왕흥사를 창건하고(최근에 577년 위덕왕 때로 수정됨), 궁남지를 건설하였으며, 미륵사(601)를 건설하는 등 토목공사를 자주 벌이고 신라와의 전쟁이 잦아 국력이 소모되는 등 실정이 잦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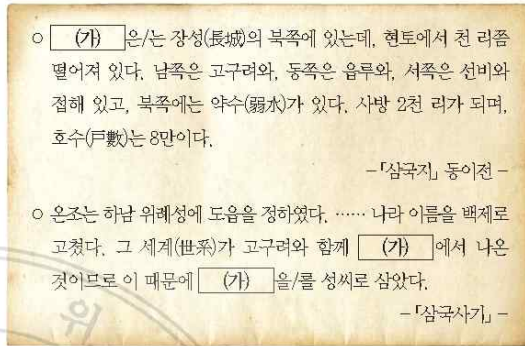
② 백제 의자왕(641~660)이 즉위하면서부터 신라와의 싸움이 보다 격렬해져 신라의 대야성을 비롯한 40여 개의 성을 빼앗았다.

③ 백제는 침류왕 때에 동진으로부터 불교를 수용하였다(384).

④ 백제는 성왕(523~554)은 사비로 천도하고 국호를 남부여로 고치는 등 중흥을 도모하였으나 신라 진흥왕에 의해 관산성에서 전사하며 물거품이 되었다.

3. (가) 나라의 사회 모습으로 옳은 것은?

[2점]



- ① 신지, 읍차 등의 지배자가 있었다.
- ② 12월에 영고라는 제천 행사를 열었다.
- ③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법금 8조가 있었다.
- ④ 제사장인 천군과 신성 지역인 소도가 존재하였다.
- ⑤ 부족 간의 경계를 중요시하여 책화라는 제도가 있었다.

정답: ②

* 초기국가 부여

고조선 다음으로 가장 오래된 국가이고, 가장 북쪽인 만주 지방에 자리하였으며, 고구려와 백제의 건국 세력이 출자하였던 부여에는 왕 아래에 가축의 이름을 딴 마가, 우가, 저가, 구가와 대사자, 사자 등의 관리가 있었다. 이들은 저마다 따로 행정 구획인 사출도를 다스리고 있어서, 왕이 직접 통치하는 중앙과 합쳐 5부를 이루었다.

왕이 죽으면 많은 사람을 껴묻거리와 함께 묻는 순장의 풍습이 있었다.

부여의 풍속에는 영고라는 제천 행사가 있었다. 이것은 수렵 사회의 전통을 보여 주는 것으로 12월에 열렸다. 이 때에는 하늘에 제사를 지내고 노래와 춤을 즐겼으며, 죄수를 풀어 주기도 하였다.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는 제천 의식을 행하고, 소를 죽여 그 굽으로 길흉을 점치기도 하였다.

① ④ 삼한에는 신지, 읍차와 같은 정치적 지배자 외에 제사장인 천군이 있었다. 그리고 신성지역으로 소도가 있었는데, 이 곳에서 천군은 농경과 종교에 대한 의례를 주관하였다. 천군이 주관하는 소도는 군장의 세력이 미치지 못하는 곳으로, 죄인이라도 도망을 하여 이 곳에 숨으면 잡아가지 못하였다. 이러한 제사장의 존재에서 고대 신앙의 변화와 제정의 분리를 엿볼 수 있다.

③ 고조선은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법률로 8개 조항(8조법)이 있었는데, 다음의 3개 조항만 오늘날까지 전해진다.

-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에 처한다."
- 남을 다치게 한 자는 곡물로 갚는다."
- 도둑질한 자는 잡아다 종으로 삼는다. 용서를 받으려면 많은 돈을 내야 한다.

이 법을 보면, 고조선 사회는 사람들의 생명(노동력)과 재산을 중시하고,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데에 힘썼음을 알 수 있다.

⑤ 동예는 각 부족의 영역을 함부로 침범하지 못하게 하였다. 다른 부족의 생활권을 침범하면 책화라 하여 노비와 소, 말로 변상하게 하였다.

4. 다음 상황이 전개된 배경으로 옳은 것은?

[2점]



- ① 무령왕이 22담로에 왕족을 파견하였다.
- ② 장수왕이 수도를 국내성에서 평양으로 옮겼다.
- ③ 연개소문이 정변을 일으켜 권력을 장악하였다.
- ④ 진흥왕이 대가야를 병합하여 영토를 확장하였다.
- ⑤ 법흥왕이 병부를 설치하여 군사력을 강화하였다.

정답: ②

* 나제 동맹(433) 결성의 배경

5세기 고구려의 전성기를 이룬 장수왕(413~491)은 수도를 국내성에서 대동강 유역의 평양성으로 옮기고(427), 남진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백제와 신라를 압박하였다.

특히, 고구려의 침략 위협을 직접적으로 받은 것은 백제였다.

신라는 내물왕 때의 고구려 광개토왕의 군사 원조(400) 이후 고구려로부터 직·간접으로 많은 간섭을 받고 있었는데, 그 결과 고구려의 군대가 신라영토에 주둔하고 심지어는 왕위계승까지도 고구려의 간섭을 받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이에 백제(비유왕)와 신라(눌지왕)가 동맹을 맺어 고구려의 남진 정책에 대항하였다(433)

① 무령왕(501~523)은 웅진 시대의 백제의 왕으로 지방의 22담로에 왕족을 파견함으로써 지방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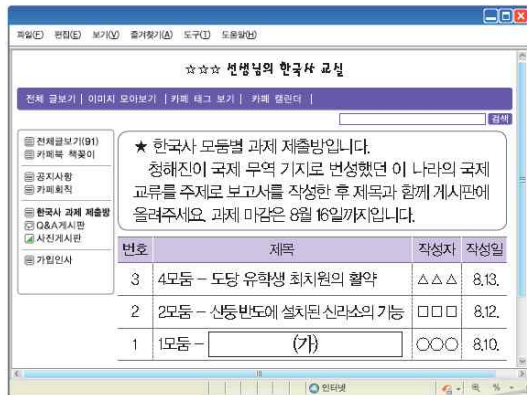
③ 고구려의 동부대인 연개소문은 자신을 제거하려는 영류왕을 비롯한 여러 대신을 제거하는 정변을 일으킨(642) 후 정권을 독점하고, 대당 강경노선을 추구하였다.

④ 신라 진흥왕(540~576)은 활발한 대외 정복 전쟁으로 한강 유역을 차지하고(553), 대가야를 정복하며(562) 가야를 완전 복속하였다.

⑤ 신라 법흥왕(514~540)은 병부와 상대등의 설치(531), 율령의 반포와 공복의 제정(520) 등을 통하여 통치 질서를 확립하였다.

5.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① 무역소를 통한 여진과의 교역 물품 분석
- ② 쇼토쿠 태자의 스승인 혜자의 생애와 활동
- ③ 당항성과 중국을 연결하는 해상 교통로 탐색
- ④ 당의 장안성과 상경 용천부의 도성 구조 비교
- ⑤ 칠지도 명문의 해석으로 알아 본 일본과의 관계

정답: ③

* 청해진이 설치되었던 통일신라기 대당교류

통일 후 신라는 당과의 관계가 긴밀해지면서 무역이 번성하였고, 공무역뿐 아니라 사무역도 발달하였다. 무역로는 산둥 반도에서 당항성으로 오는 경로와 당의 서주에서 영암을 거쳐 울산항에 가는 것이 대표적이다.

처음에는 일본과 교류를 제한하여 무역이 성행하지 못하였으나, 8세기에 이르러 활발해졌다. 한편, 국제 무역이 발달하면서 이슬람 상인이 울산에까지 와서 무역하였다.

8세기 이후 동아시아의 무역 활동이 활발해져, 장보고는 완도에 청해진을 설치하고 (828) 해적을 소탕하여 남해와 황해의 해상 무역권을 장악하였다.

무역 확대로 산둥 반도와 양쯔 강 하류에 신라인의 거주지인 신라방과 신라촌, 신라인을 다스리는 신라소, 여관인 신라관, 절인 신라원이 만들어 졌다.

① 조선은 초기에 사절의 왕래를 통한 무역을 허용하여 국경 지방인 경성과 경원에 무역소를 두고 국경 무역을 허락하였다.

② 7세기 초 고구려의 승려 혜자는 쇼토쿠 태자의 스승이 되어, 일본의 중앙집권과 불교 융성에 기여하였다.

④ 백제와 왜와의 관계는 근초고왕대 (346~375)에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 이 시기의 양국관계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백제왕이 왜왕(倭王)을 후왕(侯王)으로 대우하면서 보낸 칠지도(七支刀)이다. 이후 백제는 왜에 학술·기술 등 선진문물을 제공하고 대신 왜는 백제의 요청에 응해 군사를 원조하는 형태로 전개되었다.

⑤ 발해의 수도인 상경은 당나라 수도 장안성을 모방한 구조로 외성을 쌓고, 남북으로 넓은 주작 대로를 내었다.

6. 밑줄 그은 '이 유물'로 옳은 것은?

[1점]

1993년 ○○월 ○○일
부여 능산리 절터에 대한 발굴 조사 중에 생각지도 못한 문화 유산이 발굴되었다. 나성과 능산리 고분군 사이의 계단식 논에서 발견된 이 유물은 도교와 불교 사상이 함께 반영된 것으로, 아마도 왕실 의례에 사용된 것으로 추측된다. 비록 능산리 절은 백제의 멸망과 함께 사라졌지만 우리가 발굴한 유물들을 통해 찬란한 백제의 문화를 세상에 알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니 부뒵하다.



정답: ④

* 백제 금동 대향로

금동 대향로(부여 출토): 국보 287호. 백제의 수도인 사비(부여)의 능산리 절터에서 출토된 이 향로는 불교적 유물이지만 도교적 이상향(신선들이 사는 세계 묘사-용, 봉황 묘사)을 표현했으며, 백제의 높은 금속공예기술을 볼 수 있다.

① 고려 지산동 32호분 출토 금동관(대가야)

② 신라 기마인물 토기 (경주 금령총 출토, 국보 91호)

③ 호우명 그릇(보물 1878호): 경주의 호우총에서 발굴된 것으로, 이 그릇 밑바닥에 “乙卯年國岡上廣開土地好太王壺杆十(을묘년 국강상 광개토지호태왕호우십)”이라는 글씨가 새겨져 있어, 당시 신라와 고구려의 관계를 보여 준다.

⑤ 공주 무령왕릉 출토 진묘수(국보 162호)

7. (가)~(다)의 문화유산을 제작된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2점]

(가)



(나)



(다)



① (가) - (나) - (다)

③ (나) - (가) - (다)

⑤ (다) - (나) - (가)

② (가) - (다) - (나)

④ (나) - (다) - (가)

정답: ②

* 고대의 석탑 연대기

(가) 분황사 모전 석탑: 분황사는 634년(선덕여왕 3)에 창건되었으며, 국보 제30호로 지정된 모전 석탑이 유명한데, 이는 현존하는 신라의 석탑 중 가장 오래된 것이다.

분황사탑은 석재를 벽돌 모양으로 만들어 쌓은 탑으로, 지금은 3층까지만 남아 있다.

1층 4면에는 감실(龕室)을 만들고 그 좌우에 인왕상(仁王像)을 각각 1구씩 새긴 화강암을 끼웠다. 이 인왕상 조각은 당시 7세기 신라 조각 양식을 살피는 데 좋은 자료가 된다.

(다) 불국사 3층 석탑(석가탑): 국보 21호. 751년 건립된 불국사의 대웅전 영역은 법화경의 세계를 다보여래(과거불)를 상징하는 복잡하고 화려한 다보탑과 간소하고 날씬한 석가여래(현재불)를 상징하는 석가탑으로 구현하였다. 특히 석가탑은 통일 신라기(8세기)에 유행한 3층 석탑의 전형을 보여준다.

(나) 쌍봉사 철감선사 승탑(국보 57호): 신라 하대에는 선종이 널리 퍼지면서 승려의 사리를 봉안하는 승탑(부도)과 탑비가 유행하였다. 팔각원당형을 기본형으로 삼고 있는 승탑의 대표로 '쌍봉사 철감선사 부도'(868)가 유명하다.

8. 다음 사건이 일어난 이후의 사실로 옳은 것은?

[3점]

고구려의 대장 검모잠(鉗牟岑: 검모잠)이 무리를 거느리고 반란을 일으켜 보장왕의 외손 안승(安陞: 안승)을 세워 왕으로 삼았다. 고간을 동주도행군총관으로, 이근행을 연산도행군총관으로 삼아 토벌케 하였다. 사평태상백 양방을 보내어 도망치고 남은 무리를 불러들이게 하였다. 안승이 검모잠을 죽이고 신라로 달아났다.

-「신당서」-

- ① 나·당 연합군이 백장에서 왜군을 물리쳤다.
- ② 복신과 도침 등이 주류성에서 군사를 일으켰다.
- ③ 계백이 이끄는 결사대가 신라군에 맞서 싸웠다.
- ④ 신라군이 당의 군대에 맞서 매소성에서 승리하였다.
- ⑤ 김춘추가 중국으로 건너가 군사 동맹을 성사시켰다.

정답: ④

* 고구려 부흥운동 실패 이후의 역사적 사실

백제 의자왕의 공격으로 대야성이 함락되자 (642), 김춘추는 고구려와 동맹하여 백제를 공격하고자 하였으나 오히려 감금당하자, 탈출하여 나당동맹을 성사 시켰다(648).

나당동맹군은 황음에 빠져 충신들의 간언을 멀리하며 내분에 빠진 의자왕의 백제를 먼저 공격하여, 660년 황산벌에서 계백의 결사적인 저항을 물리치고 백제를 멸망시켰다.

그러나 백제 멸망 이후 각 지방의 저항 세력은 백제 부흥 운동을 일으켰다. 복신과 흑치상지, 도침 등은 왕자 풍을 왕으로 추대하고 주류성과 임존성을 거점으로 군사를 일으켰다. 이들은 200여 성을 회복하고 사비성과 웅진성의 당군을 공격하면서 4년간 저항하였으나, 나·당 연합군에 의하여 부흥 운동은 좌절되었다. 이 때, 왜의 수군이 백제 부흥군을 지원하기 위하여 백강 입구까지 왔으나 패하여 쫓겨갔다(663).

백제를 멸망시킨 후, 신라 문무왕(661~681)과 당은 고구려에 대한 공격을 시작하였다. 당군은 평양성을 공격하였으나, 고구려는 이를 잘 방어하였다. 그러나 고구려는 계속된 전쟁으로 국력이 약해진데다가, 대막리지 연개소문이 죽자 지도층 안에서 권력다툼이 벌어졌다. 이 기회를 틈타 나·당 연합군은 평양성을 함락하고, 고구려를 멸망시켰다(668).

고구려 멸망 이후 보장왕의 서자 안승을 받은 검모잠과 고연무 등은 고구려의 유민을 모아 안시성과 한성(황해도 재령), 오골성 등을 근거지로 부흥 운동을 전개 하였다(669~673). 이들은 한때 평양성을 탈환하기도 하고, 후에는 신라의 도움을 받으면서 기세를 떨치기도 했지만, 내분이 일어나 안승이 검모장을 죽이며(670) 결국 실패하였다.

백제와 고구려가 멸망한 후, 당은 대동강 이남의 땅을 신라에게 준다는 약속을 어기고 한반도 전체를 지배하려는 야심을 드러냈다. 백제와 고구려의 옛 땅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신라에도 계림도독부를 설치하여 지배하려고 하였다.

이에 신라는 당군을 몰아 내기 위한 전쟁에 나섰다. 먼저, 백제의 옛 땅을 찾기 위해 고구려의 부흥 운동을 지원하여 문무왕은 고구려의 왕족 안승으로 하여금 금마저(전북 익산)에 보덕국이라는 나라를 세우도록 하였다(674). 아울러, 신라군은 당군이 주둔하고 있던 사비성을 함락하여 웅진도독부를 없애고, 백제의 옛 땅을 완전히 지배하게 되었다.

그 후, 당군은 말갈군과 거란군을 앞세워 계속 침범하였으나, 신라는 장기간의 끈질긴 항쟁으로 이들을 물리쳤다. 신라군은 당의 20만 대군을 매소성에서 크게 물리쳐 군마 3만 마리와 많은 무기를 빼앗았으며(675), 당의 수군을 금강 하류 기벌포에서 격파하였다(676). 이렇게 당 침략군을 계속 물리친 신라는 드디어 대동강 이남 땅에서 당군을 완전히 몰아냄으로써 통일을 이룩하였다(676).

9. 다음 자료에 해당하는 시기를 연표에서 옳게 고른 것은? [2점]

○ 3월에 서울과 지방의 관리에게 지급하던 월봉을 없애고, 다시 녹읍을 주었다.
○ 12월에 사벌주를 상주로 고치고, 1주 10군 30현을 거느리도록 하였다. 한산주를 한주로 고치고, 1주 1소경 27군 46현을 거느리도록 하였다.

-「삼국사기」-

676	698	722	788	822	901
(가)	(나)	(다)	(라)	(마)	
삼국 통일	발해 건국	정전 지급	독서삼품과 실시	김현창의 난	후고구려 건국
① (가)	② (나)	③ (다)	④ (라)	⑤ (마)	

정답: ③

* 통일신라기 경덕왕 대의 역사적 사실

경덕왕(742~765)은 왕권이 전제화된 신라 중대의 사실상 마지막 왕으로, 한화(漢化) 정책(중앙의 관청과 관직명 및 지방 군현명을 고유명에서 중국식으로 개칭)과 국학의 진흥 등을 통한 제도의 개편과 불국사·석굴암의 창건(751), 화엄경의 보급 등 불교의 장려를 통해 왕실의 권위와 신성함을 고양시켰다.

그러나 이러한 전제지향적인 정책에 진골 귀족들이 반기를 들어, 타협안으로 신문왕 대(689)에 폐지되었던 녹읍이 부활되었다(757).

10. (가) 인물의 활동으로 옳은 것은?

[2점]

(가) 은/는 신라 사람으로 성은 김씨이고, 아버지는 제47대 현안왕 의정이며 어머니는 현안왕의 후궁이었는데, 그 성과 이름은 전하지 않는다. 일관(日官)이 아뢰기를, “이 아이는 중오일(重午日)에 출생하였고 나면서 이빨이 나고, 또한 이상한 빛이 있었으니 장차 국가에 이름지 못할 것이므로 마땅히 이 아이를 키우지 마십시오.”라고 하였다. 왕이 궁중의 사람을 시켜 그 집에 가서 죽이게 하였다. 그 사람이 포대기에서 아이를 꺼내 누각 아래로 던졌는데 유모가 몰래 받다가 실수하여 손가락으로 눈을 찔러 한 쪽 눈이 멀었다. 머리를 깎고 중이 되어 스스로 선종(善宗)이라 불렀다.

- 「삼국사기」 -

- ① 웅천주를 기반으로 반란을 일으켰다.
- ② 훈요 10조에서 불교 숭상을 강조하였다.
- ③ 완산주를 도읍으로 후백제를 건국하였다.
- ④ 신라의 수도를 습격하여 경애왕을 죽게 하였다.
- ⑤ 국호를 마진으로 바꾸고 철원으로 도읍을 옮겼다.

정답: ⑤

* 후고구려를 세운 궁예

애꾸눈으로 유명한 궁예(?~918)는 신라 왕족의 후예로서, 진표의 미륵신앙을 통해 농민층의 기반을 갖고 있던 궁예는 기현에 투신하였으나, 곧 양길의 휘하에서 새로운 활로를 찾게 되었다.

처음에는 복원(원주) 지방의 도적 집단을 토대로 강원도, 경기도 일대의 중부 지방을 점령하였다. 이어서 예성강 유역의 황해도 지역까지 세력을 넓혔다. 그는 세력이 커지자, 송악(개성)에 도읍을 정하고 독립하여 후고구려를 세웠다(901).

그 후 궁예는 영토를 확장하고 국가 기반을 다져, 도읍을 철원으로 옮기면서 국호를 마진(연호: 무태)로 바꾸었다(904). 다시 태봉(연호: 수덕만세->정개)으로 바꾸며(911) 황제국으; 면모와 새로운 정치를 추구하였다. 궁예는 광평성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관제를 마련하고 골품 제도를 대신할 새로운 신분 제도를 모색하였다.

그러나 궁예는 계속되는 전쟁을 치르려고 지나치게 조세를 거두어들였고, 죄 없는 관료와 장군을 살해하였을 뿐 아니라, 미륵 신앙을 이용하여 전제 정치를 도모하였다. 이에 따라 백성과 신하들의 신망을 잃어 신하들에 의하여 축출되었다(9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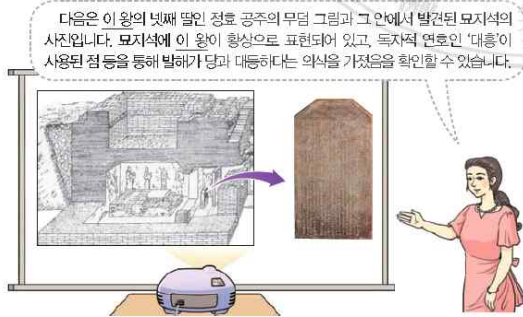
① 헌덕왕(809~826) 때에 아버지 김주원(무열왕계)이 김경신(원성왕계)에게 왕위쟁탈전에 패하자, 그 아들인 웅주(공주) 도독 김현창이 반란을 일으켜(825) 국호를 장안, 연호를 경운으로 하였고, 뒤이어 김현창의 아들 김범문이 (북)한산주에서 반란을 일으켰으나(825), 모두 실패하였다.

② ③ 상주의 군인 출신 견훤은 황해안의 해상 세력과 도적 떼 등을 자신의 군사 기반으로 흡수하여 자립하였다. 견훤은 나주를 거쳐 무진주(광주)를 점령한 후 북상하여 완산주에 도읍을 정하고 후백제를 세웠다(900). 그는 927년 신라 수도 금성을 급습하여 경애왕을 자결케 하였다.

④ 고려 태조 왕건(877~943)은 후대 왕들이 지켜야 할 정책 방향을 제시한 훈요 10조를 남겨, 불교 숭상을 강조하였다.

11. 밑줄 그은 '이 왕'의 업적으로 옳은 것은?

[2점]



- ① 지린 성 동모산에서 나라를 세웠다.
- ② 3성 6부의 중앙 관제를 정비하였다.
- ③ 장문휴를 보내 당의 등주를 공격하였다.
- ④ 5경 15부 62주의 지방 행정 조직을 확립하였다.
- ⑤ 전성기를 이루어 당으로부터 해동성국이라 불렸다.

정답: ②

* 발해 문왕의 업적

7세기 말에 이르러 당의 지방에 대한 통제력이 약화되자, 고구려 장군 출신인 대조영을 중심으로 한 고구려 유민과 말갈 집단들은 전쟁의 피해를 거의 받지 않았던 만주 동부 지역으로 이동하여 길림성의 돈화시 동모산 기슭에 발해를 세웠다(698).

대조영의 뒤를 이은 문왕(719~737) 때에는 영토 확장에 힘을 기울여 동북방의 여러 세력을 복속하고 북만주 일대를 장악하였다. 발해의 세력 확대에 따라 신라는 북방 경계를 강화하였고, 흑수부 말갈도 당과 연결하고자 하였다. 이에, 발해는 먼저 장문휴의 수군으로 당의 산둥 지방을 공격하는 한편, 요서 지역에서 당군과 격돌하였다(732). 또, 돌궐, 일본 등과 연결하면서 당과 신라를 견제하여 동북 아시아에서 세력 균형을 유지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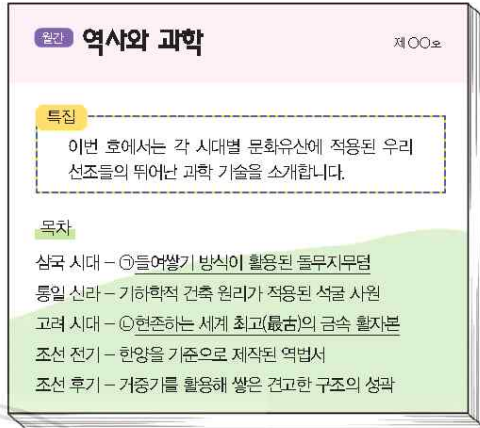
수 있었다.

이어 문왕(737년~793년) 때에는 당과 친선 관계를 맺으면서 당의 문물을 받아들여 3성 6부의 중앙관제를 정비하고, 신라와도 상설 교통로를 개설하여 대립 관계를 해소하려 하였다. 발해가 수도를 중경에서 상경으로 옮긴 것은 이러한 지배 체제의 정비를 반영한 것이다. 또한 그의 4째 딸 정효공주의 무덤에서 발견된 비석에는 문왕을 가리켜 황상(皇上)이라 칭하고 있어 발해가 그의 대에 이르러 내부적으로 황제라는 칭호를 사용하였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 무렵, 발해는 이러한 발전을 토대로 중국과 대등한 지위에 있음을 대외적으로 과시하기 위하여 인안(무왕), 대흥·보력(문왕) 등의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였다.

발해는 9세기 전반의 선왕(818~830) 때 대부분의 말갈족을 복속시키고 요동 지역으로 진출하였다. 남쪽으로는 신라와 국경을 접할 정도로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하였고, 지방 제도도 정비하였다(5경 15부 62주). 이때의 전성기를 맞은 발해를 중국인들은 해동성국이라 불렀다. 그러나 10세기 초에 이르러 부족을 통일한 거란이 동쪽으로 세력을 확대해 오고, 발해 내부에서도 귀족들의 권력 투쟁이 격화되어 발해의 국력이 크게 쇠퇴하였고, 결국 거란의 침략을 받아 멸망하였다(926).

12. 밑줄 그은 '㉠'과 '㉡'에 해당하는 문화유산으로 옳은 것은? [2점]



- | | |
|--------|-----------|
| ㉠ | ㉡ |
| ① 장군총 | 팔만대장경 |
| ② 장군총 | 직지심체요절 |
| ③ 천마총 | 팔만대장경 |
| ④ 천마총 | 직지심체요절 |
| ⑤ 무령왕릉 | 무구정광대다라니경 |

정답: ②

* 돌무지 무덤과 현존 최고(最古) 금속활자

- 고구려는 초기에 주로 돌무지무덤을 만들었으나, 점차 굴식 돌방무덤으로 바뀌어 갔다. 돌을 정밀하게 쌓아올린 돌무지무덤은 만주의 집안(지안) 일대에 1만 2000여 기가 무리를 이루고 있다. 다듬은 돌을 계단식으로 7층까지 쌓아올린 장군총이 대표적이다.

- 1372년 경한(백운 화상)이 부처와 조사(祖師)의 계송(偈頌)·법어(法語) 등에서 선(禪)의 요체를 깨닫는 데 필요한 내용을 뽑아 엮은 책을, 경한의 입적 후인 1377년 청주 흥덕사에서 간행한 직지심체요절은 현존하는 세계 최고의 금속 활자본으로 공인받고 있다. 현재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 신라 경주지역에서만 볼 수 있는 돌무지덧널 무덤은 주로 5세기 전후로 왕권이 강화되는 마립간 시대에 만들어진 무덤으로 지상이나 지하에 시신과 껌묻거리를 넣은 나무덧널을 설치하고 그 위에 냇돌을 쌓은 다음에 흙으로 덮었다. 도굴이 어려워 금관, 유리잔 등 많은 껌묻거리(부장품)가 그대로 남아 있다. 대표적인 것으로 천마도(말 배가리개 그림)가 출토된 천마총이 유명하다

- 널방을 벽돌로 쌓은 벽돌무덤은 중국 남조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완전한 형태로 발견된 무령왕릉(墓誌 발견)이 유명하다.

- 몽고의 침입 당시 고려의 최씨 정권은 민심을 모으고 부처의 힘으로 몽골군을 물리치기 위해 16년간(1236~1251) 조성한 재조대장경은, 부처의 가르침을 8만여 장의 나무판에 새겨 넣어서 팔만대장경이라고도 한다. 팔만대장경은 방대한 내용을 담았으면서도 잘못된 글자나 빠진 글자가 거의 없는 제작의 정밀성과 글씨의 아름다움 등으로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대장경으로 꼽힌다. 팔만대장경판은 2007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지정되었다.

- 불국사 3층 석탑(석가탑)에서 발견된 무구정광대다라니경은 8세기 초 통일신라기에 만들어진 두루마리 불경으로, 지금까지 남아 있는 것으로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 된 목판 인쇄물이다.

13.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자료로 보는 ○○ 시대 토지 제도의 변천

- (가) 경종 원년, 처음으로 직관(職官)과 산관(散官) 각 품의 전시과(田柴科)를 제정하였다.
 (나) 목종 원년, 문무 양반 및 군인의 전시과를 개정하였다.
 (다) 문종 30년, 양반전시과를 다시 고쳐 정하였다.

- ① (가) - 인품과 공복을 기준으로 하였다.
 ② (나) - 관직을 기준으로 토지를 지급하였다.
 ③ (다) - 현직 관리를 중심으로 토지를 지급하였다.
 ④ (가), (나) - 경기 지역으로 한정하여 토지를 지급하였다.
 ⑤ (가), (나), (다) - 지급된 토지에 대한 수조권을 인정하였다.

정답: ④

* 고려 전시과 제도의 변천

고려는 직역의 대가로 관료에게 토지를 나누어 주는 전시과 제도를 운영하였다. 국가는 문무 관리로부터 군인, 한인에 이르기까지 18등급으로 나누어 곡물을 수취할 수 있는 전지와 땔감을 얻을 수 있는 시지를 주었다. 이 때, 지급된 토지는 수조권만 가지는 토지였고, 관직 복무와 직역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었으므로 토지를 받은 자가 죽거나 관직에서 물러날 때에는 토지를 국가에 반납하도록 하였고, 분급 대상 토지는 양계 지방을 제외한 전국의 주현이었다.

전시과는 경종 원년(976)에 처음 실시되었다(시정 전시과). 직관과 산관(관직이 없고 관계만을 보유하던 관원) 모두에게 지급하였고, 관품과 인품을 병용하여 차등지급하였다. 광종 때 제정된 4색(자.단.비.녹) 공복을 기준으로 다시 문반, 무반, 잡업으로 나누어 8개 표와 관리들의 세력 크기의 다원적 구성되었다. 즉, 관품의 고하가 반영되었지만 아직도 인품과 관리들의 세력 크기가 병용되는 한계가 있었다.

목종 원년(998)의 개정 전시과는 여전히 직, 산관을 대상으로 지급하였지만, 18품의 관등(관직)이 기준되어 일원적 기준(객관적 기준)으로 토지를 지급하여 관료체제가 확립되었다. 그러나 문신 귀족적 요소가 반영되어 무관이 같은 품계의 문관에 비해 적은 전시를 받았고, 현직 우위의 경향이 있어 산관은 현직에 비하여 몇 과를 낮추어 토지를 지급받았다. 또한 18품 이하 관리에게 17결 한외과가 지급되었고, 제 16과 이하로는 시지가 지급되지 않았다.

문종 30년(1076)의 경정 전시과는 국가의 토지 지배가 더욱 강화되어 지급액수가 전체적으로 감소, 산직자는 완전배제하였다(현직 중심). 무반에 대우가 현저히 상승하고, 지방향직도 토지 지급 대상에 포함되었으며, 한외과로 분류되었던 잡류(이속) 한내(限內)로 편입되어 제 18과로 자리잡았다. 그러나 15과 이하는 시지가 급여되지 않았다. 또한 무산계(향리, 노병, 공장, 악인, 탐라 왕족, 여진 추장)와 별사(승려, 지리업) 전시가 별정 전시과로 병설되었다.

14. 밑줄 그은 '이 정책'으로 옳은 것은?

[1점]



- ① 노비안검법을 실시하였다.
- ② 12목에 지방관을 파견하였다.
- ③ 인사권을 가진 정방을 폐지하였다.
- ④ 경순왕 김부를 경주의 사심관으로 삼았다.
- ⑤ 인재를 등용하기 위해 과거제를 도입하였다.

정답: ②

* 고려 성종의 정책

고려 성종(981~997) 때에는 신라 6두품 출신의 유학자들이 국정을 주도하면서 유교 정책을 실현하고자 하였다. 성종은 즉위 후 국가의 오랜 폐단을 없애고 국정을 쇄신하기 위하여 중앙의 5품 이상의 관리들로 하여금 그 동안의 정치에 대한 비판과 정책을 건의하는 글을 올리게 하였다.

이에 최승로는 시무 28조를 올려 유교의 진흥과 과도한 재정 낭비를 가져오는 불교 행사의 억제를 요구하고, 태조로부터 경종에

이르는 5대 왕의 치적에 대한 잘잘못을 평가하여 교훈으로 삼도록 하였다(982). 성종은 최승로의 건의를 수용하여 통치 체제를 정비하였다.

성종은 먼저 지방관을 파견(12목 설치)하고 향리 제도를 마련하여 지방 세력을 견제 하였다. 또한 국자감을 정비하고, 지방에 경학 박사와 의학 박사를 파견하여 유학 교육의 진흥에 노력하였다. 아울러 과거 제도를 정비하고 과거 출신자들을 우대하여 유학에 조예가 깊은 인재들의 적극적인 정치 참여를 유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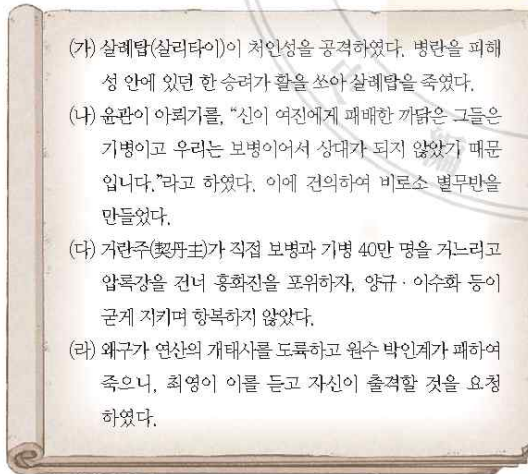
이어서 성종은 중앙의 통치 기구를 개편하였다. 당의 제도를 받아들인 2성 6부제를 기반으로 하고 태봉과 신라의 제도를 참작하여 중앙 관제를 정비하였다.

①, ⑤ 광종(949~975)은 노비안검법(956)을 실시하여 호족의 세력을 약화시키고 국가의 수입 기반을 확대하였다. 이어 후주 출신 귀화인 쌍기의 건의를 받아들여 과거 제도를 시행하여(958), 유학을 익힌 신진 인사를 등용하고 신구 세력의 교체를 도모하였다.

③ 공민왕(1351~1374)은 왕권을 제약하고 신진 사대부의 등장을 억제하고 있던 정방을 폐지하였다(1352).

④ 고려 태조(918~943)는 지방 호족을 견제하고 지방 통치를 보완하기 위하여 유력 호족 출신 중앙 관료를 출신 주의 사심관으로 임명하여 부호장 이하직 등의 일을 맡게 하는 사심관 제도(효시: 신라 경순왕 김부)와 호족의 자제 중 1인을 개경에 보내게 하는 인질적 성격의 기인제도를 실시하였다.

15. (가)~(라) 사건을 일어난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3점]



- ① (가) - (나) - (다) - (라)
- ② (가) - (나) - (라) - (다)
- ③ (나) - (가) - (다) - (라)
- ④ (나) - (가) - (라) - (다)
- ⑤ (다) - (나) - (가) - (라)

정답: ⑤

* 고려와 북방 민족과의 항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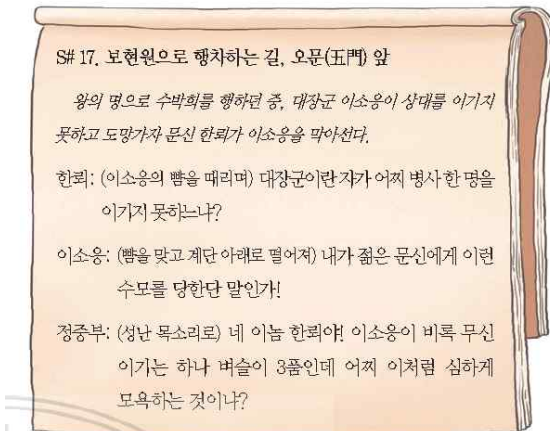
(가) **처인성 전투(1232)**: 몽골의 2차 침입 때에 김윤후가 이끈 민병과 승군이 처인성(경기 용인)에서 몽골 장수 살리타(撒禮塔)를 사살(射殺)하여 군대를 물리쳤다.

(나) **윤관과 별무반 설치(1104)**: 고려 숙종 때에 부족의 통일을 이룬 여진족이 고려의 국경까지 남하하면서 고려군과 자주 충돌하자 윤관의 건의를 받아들여 별무반이라는 특수 부대를 편성한 다음(1104), 여진족을 북방으로 밀어 내고, 예종 때에는 동북 지방 일대에 9개의 성을 쌓았다(1107).

(다) **양규의 홍화진 전투(1010)**: 강조의 정변(1009)을 구실삼아 쳐들어온 현종 때의 거란 2차 침입(1010) 때에는 개경이 함락되고 국왕이 나주까지 피난가기도 하였다. 국왕의 입조를 조건으로 거란군은 철병하였다. 이때 양규는 홍화진(의주)에서 거란 20만 대군에 맞서 싸워 돌아가게 만들었고, 철병하는 거란군을 급습하여 귀주에서 7전 전승을 거두며 3만명이 넘는 백성을 구하다 장렬히 전사하였다.

(라) **최영의 홍산대첩(1376)**: 이성계의 황산대첩(1380), 최무선의 진포대첩(1380)과 함께 고려 말 왜구와의 3대 대첩 중 하나인 홍산 대첩은, 최영이 충남 내륙 지역에 출몰한 왜구를 무찌르기 위해 60이 넘는 나이에도 불구하고 출전을 자처하여, 화살을 맞으면서도 용력을 발휘하여 왜구들을 거의 전멸시킨 승리이다.

16. 다음 시나리오의 상황 이후에 전개된 사실로 옳은 것은? [2점]



- ① 왕의 장인인 김흠돌이 반란을 도모하였다.
- ② 묘청은 칭제 건원과 금국 정벌을 주장하였다.
- ③ 의종이 왕위에서 쫓겨나 거제도로 추방되었다.
- ④ 이자겸이 왕실의 외척이 되어 권력을 독점하였다.
- ⑤ 김부식이 서경의 반란군을 진압하기 위해 출정하였다.

정답: ③

* 무신정변(1170)

11세기 이래 대표적인 문벌 귀족인 경원 이씨 가문의 이자겸은 예종과 인종의 외척이 되어 집권하였다. 특히, 이자겸은 예종의 측근 세력을 몰아 내고 인종이 왕위에 오를 수 있게 하면서 그 세력이 막강해졌다.

이러한 이자겸의 권력 독점에 반대한 왕의 측근 세력은 왕을 중심으로 결집하였다. 이에 이자겸은 반대파를 제거하고 척준경과 함께 난을 일으켜 권력을 장악하였다(1126). 그러나 이자겸이 척준경에 의하여 몰려나고 척준경도 탄핵을 받고 축출됨으로써 이자겸 세력은 몰락하였다. 이자겸의 난은 중앙 지배층 사이의 분열을 드러냄으로써 문벌 귀족 사회의 붕괴를 촉진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자겸의 난 이후, 인종은 실추된 왕권을 회복하고 민생을 안정시키며 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치 개혁을 추진하였다. 이 과정에서 김부식을 중심으로 한 보수적 관리들과 묘청, 정지상을 중심으로 한 지방 출신의 개혁적관리들 사이에 대립이 벌어졌다.

묘청 세력은 풍수지리설을 내세워 서경(평양)으로 도읍을 옮겨, 보수적인 개경의 문벌 귀족 세력을 누르고 왕권을 강화하면서 자주적인 혁신 정치를 시행하려 하였다. 이들은 서경에 대화궁이라는 궁궐을 짓고, 황제를 칭할 것과 금을 정벌하자고 주장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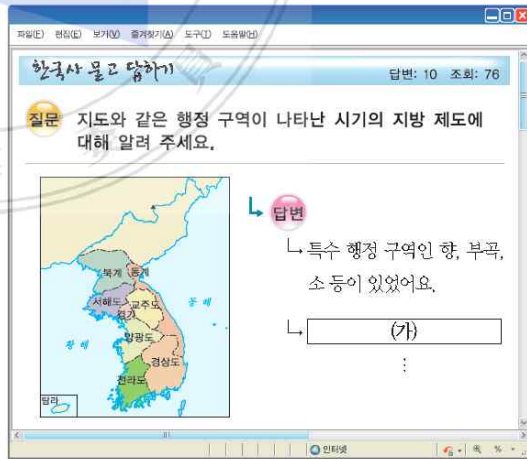
반면, 김부식이 중심이 된 개경 귀족 세력은 유교 이념에 충실함으로써 사회 질서를 확립하자고 하였다. 묘청 세력은 서경 천도를 통한 정권 장악이 어렵게 되자 서경에서 난을 일으켰으나(1135), 김부식이 이끈 관군의 공격으로 약 1년 만에 진압되고 말았다.

묘청의 서경 천도 운동(1135)을 이후 의종의 향락에 빠지는 등 실정과 문신 우대와 무신 차별에 따른 무신들의 불만이 폭발하여 정중부, 이의방 등 무신들이 보현원 행차에서 정변을 일으키어(1170), 다수의 문신을 죽이고 의종을 폐하여 거제도로 귀양 보낸 후, 명종을 세워 정권을 장악하였다.

① 신라 중대 신문왕(681~692)은 장인인 김흠돌의 모역 사건(681)을 계기로 귀족 세력을 숙청하고 정치 세력을 다시 편성하였다.

17.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2점]



- ① 경재소를 설치하여 유향소를 통제하였어요.
- ② 전국의 모든 군현에 지방관을 파견하였어요.
- ③ 상수리 제도를 실시하여 지방 세력을 견제하였어요.
- ④ 5소경을 설치하여 수도의 편재성을 보완하고자 하였어요.
- ⑤ 국경 지대에 병마사를 파견하여 적의 침입에 대비하였어요.

정답: ⑤

* 향, 부곡, 소가 있었던 고려의 지방 제도

고려의 지방의 행정 조직은 성종 초부터 정비되기 시작하였다(12목 설치). 현종 때에 전국을 5도와 양계, 경기로 크게 나누고, 그 안에 3경, 4도호부, 8목을 비롯하여 군·현·진 등을 설치하였다(예종 때 완성).

5도는 상설 행정 기관이 없는 일반 행정 단위로서, 안찰사가 파견되어 도내의 지방을 순찰하였다. 도에는 주와 군·현이 설치되고 지방관이 파견되었다. 북방의 국경 지대에는 동계·북계의 양계를 설치하여 병마사를 파견하고, 국방상의 요충지에는 진을 설치하였는데, 이것은 군사적인 특수 지역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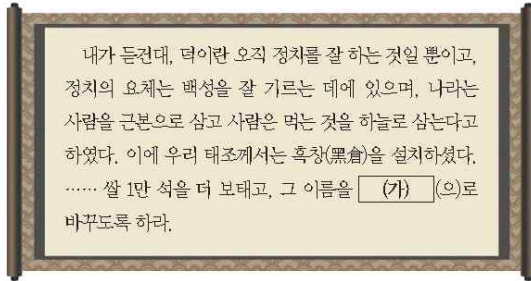
고려에서 중앙에서 지방관이 직접 파견되는 것은 주군·주현과 진까지였다. 그러나 지방관이 파견되는 주현보다 파견되지 않는 속현이 더 많았다. 속현과 향·부곡·소 등 특수 행정 구역은 주현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중앙 정부의 통제를 받고 있었다. 조세나 공물의 징수와 노역 징발 등 실제적인 행정 사무는 향리가 담당하였다.

①, ② 조선은 고려와 달리 모든 군현에 지방관을 파견하였고, 지방 사람들의 향촌 자치기구인 유향소를 통제하기 위하여, 중앙의 현직 관료로 하여금 연고지의 유향소를 통제하게 하는 경재소를 설치하였다.

③, ④ 통일 후 신라는 군사·행정상의 요지에는 5소경을 설치하여, 수도인 금성(경주)이 지역적으로 치우쳐 있는 것을 보완하고, 각 지방의 균형 있는 발전을 꾀하였고, 지방 지방 세력을 견제하기 위하여 이들을 일정 기간 서울에 와서 거주하게 하는 상수리(上守吏) 제도를 실시하였다

18.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점]



- ① 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설치한 임시 기구였다.
- ② 개경의 동쪽과 서쪽에 두어 환자를 치료하였다.
- ③ 흉년에 빈민에게 양식이나 종자 등을 빌려주었다.
- ④ 국학에 설치되어 관학 진흥을 위한 재정을 뒷받침하였다.
- ⑤ 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막고 백성에게 약을 무료로 나눠주었다.

정답: ③

* 고려의 빈민구제 기구 의창

고려 시대의 농민은 조세, 잡역 등과 같은 여러 가지 부담을 졌다. 농민 생활을 안정시키는 것은 국가 안정에 필수적이었으므로, 국가에서는 이를 위하여 여러 사회 정책을 펼쳤다.

고려의 사회제도로는 평시에 곡물을 비치하였다가 흉년에 빈민을 구제하는 의창이 있었는데, 이는 고구려의 진대법과 유사하며 태조 때의 흑창을 계승한 제도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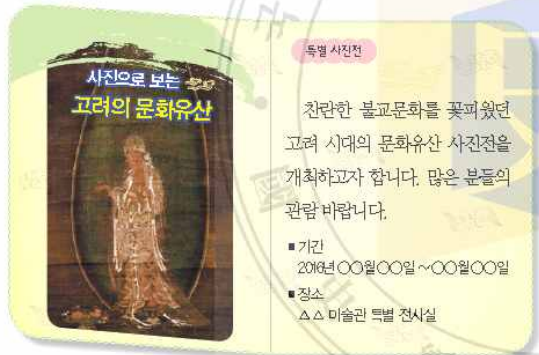
또, 개경과 서경 및 각 12목에는 상평창을 두어 물가의 안정을 꾀하여 백성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가난한 백성이 의료 혜택을 받도록 개경에 동서 대비원을 설치하여 환자 진료 및 빈민 구휼을 담당하게 하였으며, 혜민국을 두어 의약을 전담하게 하였다. 각종 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구제도감이나 구급도감을 임시 기관으로 설치하여 백성의 구제에 힘썼다.

그리고 기금을 마련한 뒤 이자로 빈민을 구제하는 제위보를 설치하였다.

④ 예종(1105~1122) 때에 국자감(국학)을 재정비하여 전문 강좌(7재)를 설치하고, 장학재단으로 양현고를 두어 관학의 경제 기반을 강화하였다.

19. 다음 사진전에 전시될 사진으로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2점]



<보 기>



- ① 가, 나 ② 가, 다 ③ 나, 다
④ 나, 라 ⑤ 다, 라

정답: ③

* 혜허의 양류관음도와 고려의 문화유산

고려 후기에 왕실과 권문세족의 구복적 요구에 따라 불화가 많이 그려졌다. 그 내용은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아미타불도와 지장보살도 및 관음보살도가 많았다. 일본에 전해 오고 있는 혜허가 그린 양류 관음도와 여러 종류의 수월 관음도가 대표적인 작품이다.

㉠ 연가 7년명 금동 여래 입상(국보 119호): 경남 의령에서 발견된 고구려 불상. 중국 북조의 영향을 받은 듯하다.

㉡ 부석사 소조 아미타여래 좌상(국보 45): 고려 초기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는데 우리나라에 남아 있는 소조불상 가운데서 가장 크고 오래된 것으로 그 가치가 높다.

㉢ 광주 춘궁리 철불(보물 332호, 현재는 하남 하사창리 소재): 1m 대좌 위에 2.8m 높이의 대형 철불. 고려 초기의 지역적 특색을 보여주는 대표적 철불이다.

㉣ 금동미륵보살 반가사유상(국보 83호): 삼산관을 쓴 이 불상은 날씬한 몸매와 그윽한 미소로 유명하다. 삼국말기의 양식으로서 신라 또는 백제의 작품으로 불분명하다. 일본의 세계적 자랑인 고류사 목조 미륵보살 반가사유상이 이를 본 뜬 것으로 보인다.

20. (가) 지역에 대한 탐구 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점]

역사 동아리 답사 안내문

(가) **의 문화유산을 찾아서**

유구한 역사와 전통이 살아 숨쉬는 우리 고장의 문화유산을 찾아가고자 합니다. 동아리 회원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일시: 2016년 ○○월 ○○일 09:00 ~ 17:00
- 경로: 병산서원 → 봉정사 → 법흥사지 칠층전탑 → 도산서원
- 문화유산 위치 안내



① 대몽 항쟁을 펼친 삼별초의 근거지를 파악한다.
 ② 홍건적의 침략 당시 공민왕이 피란한 지역을 찾아본다.
 ③ 인조가 피신하여 청군과 항전을 벌인 장소를 알아본다.
 ④ 양헌수가 이끈 부대가 프랑스군을 격퇴한 곳을 조사한다.
 ⑤ 북로 군정서군이 일본군에 대승을 거둔 전적지를 검색한다.

정답: ②

* 안동의 역사와 문화유산

우리나라의 탑은 대부분 석탑인데, 안동에 유난히도 전탑(벽돌탑)이 많다. 남한의 전체 전탑 5개 중 안동에 3개가 있고, 그 중 안동 신세동 법흥사지 7층 전탑(국보 16호, 8세기 건립)이 유명하다.

또한 고려 시대의 대형 석불인 안동 이천동 석불(마애여래 입상),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목조 건축물로 추정되는 봉정사 극락전(국보 15호, 1363년 수리 기록), 2009년에

경주 양동과 함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하회 마을과 하회탈, 병산탈. 위대한 성리학자 퇴계 이황이 성리학을 가르치던 도산서당을 개축한 도산서원과 유성룡을 배향한 병산서원 등도 유명하다.

역사적으로는 고려 태조 왕건이 930년 고창(안동) 전투에서 후백제를 크게 격파하여 승기를 잡는데, 이 때 재지 호족인 권행·김선평·장길이가 왕건을 도와 견훤을 패하게 하였다. 이 때 견훤과 합전교에서 싸울 때 큰나무를 묶어서 한 덩어리를 만들어 여러 사람이 어깨에 메고 이를 앞세워 진격하였다고 한다. 이 전승을 기념하기 위하여 매년 정월 보름날을 기하여 나무묶음(동채)을 메고 싸움하는 놀이를 하였다(차전놀이).

고려 말 공민왕 때(1351~1374) 2차례에 걸쳐 중국 대륙으로부터 홍건적이 쳐들어왔는데, 2차 때(1361)에는 개경이 함락되어 왕후와 안동으로 길을 떠났는데, 개성을 떠나 문경 새재를 넘어 예천의 풍산을 거쳐 소야천의 나루에 이르렀을 때 마을 부녀자들이 나와 개울에 들어가 허리를 굽히고 다리를 놓아 왕후가 발을 적시지 않고 건너가게 한 것에서 안동 넋다리밟기가 유래하였다.

① 삼별초의 대몽 항쟁(1270~1273) 근거지로는 강화도, 진도, 제주도가 있다.

③ 병자호란(1636) 때에 인조는 남한산성에서 항거하다 굴욕적 항복을 하였다.

④ 병인양요(1866) 때에 양헌수는 강화도 정족산성에서 프랑스군을 격퇴하였다.

⑤ 김좌진이 이끄는 북로군정서는 여러 독립군들과 함께 북간도 청산리(길림 화룡)에서 일본군에 대승을 거두었다(1920.10)

21.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이곳은 기묘사화로 화상당한 (가)의 위패를 모신 삼곡 서원입니다. 중종에 의해 발탁된 그는 소격서 폐지 등 유교적 개혁 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하지만 위훈 식체에 불만을 품은 훈구파의 반발로 사사되었습니다.



- ① 최초의 서원인 백운동 서원을 건립하였다.
- ② 양명학을 연구하여 강화 학파를 형성하였다.
- ③ 새로운 인사의 등용을 위해 현량과 실시를 주장하였다.
- ④ 동호문답을 저술하여 다양한 개혁 방안을 제시하였다.
- ⑤ 조선경국전을 편찬하여 재상 중심의 정치를 강조하였다.

정답: ③

* 기묘 사림 조광조(1482~1519)

중종 반정(1506) 후 중종은 사림을 다시 등용하여 유교 정치를 일으키려 하였다. 당시 명망이 높았던 조광조(김종직-김굉필-조광조로 사림의 학통이 이어짐)가 중용되면서 그의 건의에 따라 천거제의 일종인 현량과를 통하여 사림이 대거 등용되었다.

이들은 3사의 연관직을 차지하고 자신들의 의견을 공론이라 표방하면서 급진적 개혁을 추진해 나가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한 공신들의 반발로 말미암아 조광조를 비롯한 사림 세력은 대부분 제거되었다(기묘사화: 1519).

조광조를 비롯한 당시의 사림은 경연의 강화, 언론 활동의 활성화, 반정 공신 중 위훈(僞勳) 삭제, 소격서(도교적 행사인 초제 주관 기관)의 폐지, 향약의 시행, 소학의 보급, 방납의 폐단 시정 등을 주요 정책으로 삼았다.

① 조선 중기 중종 때(1543)에 풍기 군수 주세붕(1495~1554)의 백운동 서원 건립을 시작으로, 선현 봉사(奉祀)와 교육을 위한 서원이 설립되기 시작하였다.

② 18세기 초에 정제두(1649~1736)는 몇몇 소론 학자가 명맥을 이어가던 양명학을 체계적으로 연구하여 강화학파를 형성하였다.

④ 주기론적 성리학자 이이(1536~1584)는 동호문답, 성학집요 등을 저술하여 16세기 조선 사회의 모순을 극복하는 방안으로 통치체제의 정비와 수취 제도의 개혁(수미법 주장) 등 다양한 개혁 방안을 제시하였다.

⑤ 조선 개국 공신 정도전(1342~1398)은 유교적 통치 규범을 성문화하기 위한 법전의 편찬에 힘써 조선경국전(1394)과 경제문감(1395)을 편찬하였고, 민본적 통치 규범을 마련하고, 재상 중심의 정치를 주장하였다.

22.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2점]



- ① 신무기인 신기전과 화차가 개발되었어요.
- ② 천체의 운동을 측정하는 혼천의가 제작되었어요.
- ③ 이덕무 등이 훈민 교본인 무예도보통지를 편찬하였어요.
- ④ 강희맹이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금양잡록을 저술하였어요.
- ⑤ 국산 약재와 치료 방법을 정리한 향약집성방이 간행되었어요.

정답: ③

* 조선 전기(15세기) 과학의 발전

조선 초 세종 때(1418~1450)를 전후한 이 시기의 과학 기술은 우리나라 역사상 특기할 정도로 뛰어났다. 당시의 집권층은 부국강병과 민생 안정을 위하여 과학기술이 중요하다고 인식하였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과학 기술은 국가적 지원을 받아 크게 발전하였다. 이와 아울러 우리나라의 전통적 문화를 계승하면서 서역과 중국의 과학 기술을 수용하여 훌륭한 업적을 남겼다. 특히, 천문학, 농업과 관련된 각종기구를 발명, 제작하였다.

특히 농업을 중시하여 세종 대에 우리나라 풍토에 맞는 씨앗의 저장법, 토질의 개량법, 모내기법 등 농민의 실제 경험을 종합한 농사직설(1429)을 정초, 변호문 등을 시키어 편찬하였고, 성종 때 문신 강희맹은 네 계절의 농사와 농작물에 대한 필요사항을 기술한 농서인 금양잡록(1492)을 저술하였다. 이 책은 당시 경기도 금양(시흥) 일대의 농업 사정을 살피는 데 매우 중요한 자료이다.

세종 대에 천체 관측 기구로 혼(천)의, 간의를 제작하고, 시간 측정 기구로 물시계인 자격루와 해시계인 앙부일구 등이 만들었다. 특히 자격루는 정밀 기계 장치와 자동시보 장치를 갖춘 뛰어난 물시계였다. 세계 최초로 측우기를 만들어(1441) 전국 각지의 강우량을 측정하였다.

세종 때에 천문학의 발달과 함께 새로운 역법이 마련되었다. 세종 때에 만든 칠정산 내외편(1442)은 중국의 수시력과 아라비아의 회회력을 참고(칠정산 외편)로 하여 만든 역법서로, 우리 나라 역사상 최초로 서율을 기준으로 천체 운동을 정확하게 계산한 것이다(칠정산 내편). 이는 15세기 세계 과학의 첨단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인쇄 기술도 더욱 발전하여 종전에는 밀랍으로 활자를 고정시키는 방법을 사용하였으나, 이제는 밀랍 대신 식자판을 조립하는 방법을 창안하여 종전보다 두 배 정도의 인쇄 능력을 올렸다(갑인자, 1434).

의학에서도 우리 풍토에 알맞은 약재와 치료 방법을 개발, 정리하여 향약집성방(1433)을 편찬하고, 의방유취(1445)라는 의학 백과사전을 간행하였다.

무기에 있어서도 화약무기인 비격진천뢰(1435)를 발명하고, 바퀴가 달린 화차에 신기전(1448)을 장착하여 화살 100개를 잇따라 발사할 수 있었다.

③ 조선 후기 정조(1776~1800) 때에 이덕무, 백동수 등을 시켜 종합무예서인 무예도보통지를 편찬하였다(1790).

23. 밑줄 그은 '왕'의 업적으로 옳은 것은?

[1점]

왕이 이르기를, “양평군 허준은 일찍이 의방(醫方)을 찬집(撰集)하라는 선왕의 특명을 받아 몇 년 동안 자료를 수집하였고, 심지어 유배되어 옮겨 다니는 가운데서도 그 일을 쉬지 않고 하여 이제 비로소 책으로 엮어 올렸다. 이에 생각건대, 선왕 때 명하신 책이 과인이 계승한 뒤에 완성을 보게 되었으니, 내가 비감(悲感)한 마음을 금치 못하겠다. 허준에게 말 한 필을 직접 주어 그 공에 보답하고 속히 간행하도록 하라.”라고 하였다.

- ① 명과 후금 사이에서 중립 외교를 펼쳤다.
- ② 탕평비를 세워 봉당 정치의 폐해를 경계하였다.
- ③ 초계문신제를 시행하여 문신들을 재교육하였다.
- ④ 6조 직계제를 처음 실시하여 왕권을 강화하였다.
- ⑤ 집현전을 설치하여 인재를 육성하고 편찬 사업을 추진하였다.

정답: ①

* 광해군의 업적

선조의 뒤를 이은 광해군(재위: 1608~1623)은 전쟁의 뒷수습을 하고자 노력하였다.

먼저, 토지 대장과 호적을 새로 만들어 국가 재정 수입을 늘렸고, 전쟁으로 피해를 입은 산업을 일으켰다. 무엇보다도 농민들의 부담을 줄이고자 공물을 현물 대신 토지의 결수에 따라 쌀, 삼베나 무명, 동전 등으로 납부하는 대동법을 경기도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였다(1608).

또, 성곽과 무기를 수리하고 군사훈련을 실시하는 등 국방에 힘을 기울였고, 전란 중에 질병이 널리 퍼져 인명의 손상이 많았던 경험을 되살려, 허준으로 하여금 동의보감(1610)을 편찬하게 하였다.

대외적으로는 명과 후금 사이에서 신중한 중립 외교 정책으로 대처하였다. 그리하여 명의 요청으로 후금을 토벌키 위해 심하(深河)에 강홍립과 군대를 파견하였으나 적당히 싸우다 항복하는 중립외교를 펼쳤다(1619).

그러나 광해군과 복인 정권은 왕권의 안정을 이루고자 영창대군을 죽이고 인목대비를 유폐시키는 등 유교 윤리에 어긋나는 정치를 펴 도덕적으로 큰 약점을 드러냈다. 그리하여 이를 빌미로 서인이 인조 반정을 일으킴으로써 광해군은 왕위에서 물러나게 되었다.

② 영조(1724~1776)는 탕평책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한양의 성균관에 봉당간의 다툼을 금하는 탕평비를 세웠다(1742).

③ 정조(1776~1800)는 자신의 권력과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신진 인물이나 중·하급 관리 중에서 유능한 인사를 재교육하는 초계문신 제도를 실시하였다.

④ 태종(1400~1418)은 6조에서 의정부로 거치지 않고 곧바로 사안을 국왕에게 올려 재가를 받아 시행하는 제도인 6조 직계제를 채택하여 왕권을 강화하였다.

⑤ 세종(1418~1450)은 유교 정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궁중 안에 정책 연구 기관으로 집현전을 두고(1420) 집현전 학사를 일반 관리보다 우대하였다(학문 연구, 사가독서, 경연과 서연 담당).

24. 밑줄 그은 '이 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2필 양역(良役)의 폐단이 나라를 망치는 근저가 된 지 오래 되었습니다. 조종조(祖宗朝) 이래로 누차 변동시키는 제책을 강구하였지만, 지금에 이르도록 시일만 지체하면서 폐단은 날로 더욱 심해지니 …… 급기야 임금께서 재차 공궐 문에 임하시어 민정을 널리 물으셨지만, 호전(戶錢)·결포(結布)의 주장을 모두 행할 수 없게 되자 마침내 개연히 눈물을 흘리시며, “2필의 양역을 비록 다 혁파할 수는 없지만 1필로 줄이는 이 정책은 행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하교하시기에 이르렀습니다.

- ① 풍흉과 토지의 비옥도에 따라 차등 부과하였다.
- ② 선해법이라는 이름으로 경기도에서 처음 시행되었다.
- ③ 육의전을 제외한 시전 상인의 금난전권 폐지를 가져왔다.
- ④ 공인이 등장하여 상품 화폐 경제가 발달하는 계기가 되었다.
- ⑤ 재정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주에게 결작을 부과하였다.

정답: ⑤

* 군역의 개혁 군역법(1750)

양 난 이후 5군영의 성립으로 모병제가 제도화되자, 군영의 경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포를 내는 것으로 군역을 대신하는 수포군이 점차 증가하였으나, 납속이나 공명첩으로 양반이 되어 면역하는 자가 늘어나 군역의 재원은 점차 줄어들었다.

이에 각 군영과 감영·병영은 경쟁적으로 군포의 부과량을 늘리고 다중적으로 걷어가는 등 군역의 부담이 과중해지자, 농민은 도망

가거나 노비나 양반으로 신분을 바꾸어 군역을 피하는 경향이 더욱 심해졌다.

이에 군역의 폐단을 시정하려는 개혁 방안이 논의되고(호포론, 유로폰, 결포론, 구전론), 마침내 영조 때에 군역법(감필론)이 시행되었다(1750).

이로부터 농민은 기존의 1년에 군포 2필에서 줄어들어 1필만 부담하면 되었다. 군역법 시행으로 감소된 재정은 지주에게 결작이라고 하여 토지 1결당 미곡 2두를 부담시키고, 일부 상류층에게 선무군관이라는 칭호를 주고 군포 1필을 납부하게 하였으며, 어장세, 선박세 등 잡세 수입으로 보충하게 하였다.

그러나 토지에 부과되는 결작의 부담이 소작농민에게 돌아가고, 군적 문란이 심해지면서 농민의 부담은 다시 가중되었다.

① 조선 전기에는 세종 때에 마련된 공법(1444)에 따라 풍흉과 토지 비옥도를 고려하여 전세를 차등 있게 징수하는 연분 9등법과 전분 6등법을 실시하였다.

② ④ 조선 후기에 공납의 폐단을 해결기 위해 공납을 전세화시킨 대동법을 광해군 때에 경기도에서부터 실시하였다(1608). 이에 따라, 국가가 필요한 관수품은 공인이라는 어용상인이 조달하며,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하게 되었다.

③ 정조 대(1776~1800)에 통공 정책을 실시하여 육의전을 제외한 시전들의 금난전권을 폐지하여(1791, 신해통공) 상업 활동의 자유를 확대하였다.

25. 다음 자료의 상황이 나타난 시기의 경제 모습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금점 5곳 가운데 두 곳의 금맥은 이미 다 되어 거의 철폐하기에 이르렀고, 세 곳의 금맥은 넉넉하고 많습니다. …… 총 인원은 일정하지 않아 세금을 걷는 수 역시 그에 따라 늘었다 줄었다 하는데, 가장 왕성하게 점을 설치하였을 때는 하루아침에 받는 세금이 수천여 냥이나 되며, 그 중 7백 냥은 화성부에 상납하고 50여 냥은 점 안의 소임 등의 급료 값으로 제하고, 1천 냥은 차인(差人)이 차지합니다.

<보 기>

- ㄱ. 해동통보가 주조되어 유통되었다.
- ㄴ. 담배와 면화 등이 상품 작물로 재배되었다.
- ㄷ. 시전을 감독하기 위해 경시서가 설치되었다.
- ㄹ. 송상이 청과 일본 사이의 중계 무역으로 부를 축적하였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 ④ ㄴ, ㄹ ⑤ ㄷ, ㄹ

정답: ④

* 설점수세제가 유행했던 조선 후기 경제상

조선 시대에 광산은 본래 정부가 독점하여 필요한 광물을 채굴하였다. 정부는 17세기 중엽부터 민간인에게 광산 채굴을 허용하고 세금을 받는 정책을 실시하였다(설점수세제). 이에 따라 민간인에 의한 광업이 활기를 띠게 되었다. 특히 인기 높은 금광 외에도 청과의 무역으로 은의 수요가 늘어나면서 은광의 개발이 활기를 띠었다.

- 조선 후기에는 대동법 실시와 장시와 상업의 발달하며 상품의 유통이 활발해짐에 따라, 농민들은 쌀, 목화, 채소, 담배, 인삼, 약초 등의 상품작물을 재배하여 팔아 가게 수입을 증가시켰다.

- 18세기 이후에는 사상(私商)이 서울을 비롯한 각지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였다. 사상의 활동은 주로 이현, 칠패, 송파, 누원 등 도성 주변에서 이루어졌지만, 개성(송상), 평양(유상), 의주(만상), 동래(내상) 등 지방 도시에서도 활발하였다. 특히 개성의 송상은 전국에 지점(송방)을 설치하여 활동 기반을 강화하였는데, 주로 인삼을 재배, 판매하고 대외 무역에도 깊이 관여하여 청과 일본 사이의 중계무역으로 부를 축적하였고, 의주의 만상은 대중국(대청) 무역을 주도하면서 재화를 많이 축적하였다.

㉠ 고려 시대에는 상업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화폐가 발행되었다. 성종 때에는 철전인 건원중보(996)를 만들었으며, 숙종(1095~1105) 때에는 삼한통보, 해동통보, 해동중보 등 동전과 활구(은병)라는 은전을 만들었으나, 널리 유통되지 못하였다. 일반적인 거래는 여전히 곡식이나 삼베(저포)를 사용하였다.

㉡ 조선은 고려보다도 상업 활동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였다. 1394년 한양으로 천도하면서 종로 거리(운종가)에 상점가를 만들었다. 여기에 개경에 있던 시전 상인을 한양으로 이주시켜 장사하게 하는 대신에 점포세와 상세를 거두었다. 시전 상인은 왕실이나 관청에 물품을 공급하는 대신에 특정 상품에 대한 독점 판매권을 부여받았다. 이들 시전에서 명주, 종이, 어물, 모시, 삼베, 무명을 파는 점포가 가장 번성하였는데, 후에 이를 육의전이라 하였다. 또, 이들의 불법적인 상행위를 통제하기 위하여 경시서를 두었다.

26.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지도로 옳은 것은?

[2점]

현재 남아 있는 동양 최고(最古)의 세계 지도로 1402년 김사형, 이무가 발의하고 이회가 실무를 맡아 제작하였다. 원의 세계 지도를 참고하였지만, 한반도와 일본 부분이 지나치게 소략해 한반도 지도와 일본 지도를 보강하여 제작하였다. 이 지도에는 아시아·유럽·아프리카 대륙과 주요 도시가 표시되어 있다.



정답: ①

* 동양 최고(最古) 지도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

태종 2년(1402) 김사형·이무·이회 등이 작성한 우리나라 최초의 세계지도(권근 발문)이자, 현존하는 동양 최고(最古)의 세계지도. 이 지도의 필사본은 현재 일본 류코쿠 대학에 소장되어 있다.

아라비아 지도학의 영향을 받은 원나라 이택민의 세계지도인 성교광피도(聖敎廣被圖)와 승려 청준의 <혼일강리도>를 중국에서 들여와 이 지도에 우리나라와 일본을 추가하여 완성한 것이다. 일본 지도는 1401년 박돈지가 사신으로 일본에 갔다가 가지고 온 지도를 참고하여 첨가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지도에는 중국이 지도의 중앙에 가장 크게 그려져 있고, 우리나라가 다음으로 크게 그려져 있다. 당시 우리나라와 중국에 대한 지

리적 정보는 매우 우수하다. 지명도 매우 자세하게 기입되어 있다. 특히 한반도의 모습이 오늘날의 지도 모습과 매우 유사하다.

그러나 두 나라를 제외한 다른 지역에 대한 지리적 정보는 매우 빈약하다. 특히 일본은 지리적 위치가 부정확하게 나타나 있는 것으로 보아 중국에 비하여 일본에 대한 지리 정보가 상대적으로 빈약했음을 보여준다. 일본은 우리나라의 남쪽에 배치되어 있으며, 크기도 우리나라보다 아주 작게 그려져 있다. 그것도 일본 서해안 지역이 북쪽을 향하게 배치되어 방위가 틀어져 있다. 아프리카, 유럽은 매우 빈약하게 그려져 있고 신대륙인 아메리카나 대양주는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다. 당시 조선을 비롯하여 여러 국가나 대륙명이 기입되어 있지 않아 지도상의 지역들이 어느 나라 어느 대륙을 나타내고 있는지 정확히 전하지 못하고 있다.

② 지구전도: 청의 장정부가 제작한 지구도를 최한기가 편집하고, 김정호가 판각한 지구전도(구대륙)와 후도(신대륙)의 한 부분

③ 천하도: 17세기 경으로 추정되는 작자 미상의 세계지도, 실측도가 아닌 실재와 상상이 혼재된 세계를 구현한 관념도. 천원지방의 중화·도교 사상이 내재되어 있다.

④ 여지전도: 19세기 초에 제작되었고 김정호와 관련이 추정되는 세계지도. 남·북 아메리카 대륙을 제외한 구대륙의 지도. 외국지도를 그대로 복사한 것이 아닌 조선 후기 각종 자료를 수집하여 편집한 지도이다.

⑤ 곤여만국전도 명말 서양 선교사 마테오 리치가 만든 전 세계 5대주를 망라한 세계지도(1602). 중국을 통하여 전해짐으로써 중국 중심의 세계관에 변화가 생겨 당시 조선인의 세계관이 확대될 수 있었다.

27. 다음 자료에 해당하는 군사 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주상께서 도감을 설치하여 군사를 훈련시키라고 명하시고 나를
도제조로 삼으시므로, 내가 청하기를, “당숙미” 1천 석을 군량으로
하되 한 사람 당 하루에 2승씩 준다 하여 군인을 모집하면 옹하는
자가 사방에서 모여들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 얼마 안 되어
수천 명을 얻어 조종 쓰는 법과 창칼 쓰는 기술을 가르치고 ……
또 당번을 정하여 궁중을 숙직하게 하고, 국왕의 행차가 있을 때
이들로써 호위하게 하니 민심이 점차 안정되었다.

- 「서예집」 -

*당숙미(唐肅米): 명에서 들여온 쌀

- ① 정조 때 설치된 국왕의 친위 부대였다.
- ② 정미 7조약에 의해 강제로 해산되었다.
- ③ 포수, 사수, 살수의 삼수병으로 편제되었다.
- ④ 이종무의 지휘 아래 대마도 정벌에 참여하였다.
- ⑤ 양인개병의 원칙에 따라 의무병으로 구성되었다.

정답: ③

* 훈련도감

5위를 중심으로 운영되던 조선 초기의 중앙
군은 16세기 이후 군역의 대립제가 일반화
되면서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였다. 임진
왜란 초기에 어이없는 패전을 경험한 조정에서는 새로운 군대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왜
군을 물리치는 데 효과적인 편제와 군사 훈련
방식을 모색하였다. 그 결과, 훈련도감이
설치되었다(1593).

훈련도감의 군병은 포수.사수.살수의 삼수병
으로 편성되었는데, 이들은 장기간 근무를
하고 일정한 급료를 받는 상비군으로서, 의
무병이 아닌 직업 군인의 성격을 가진 군인
이었다(장번급료병).

① 정조 때 설치된 국왕 친위 부대인 장용영
(장용위:1785->장용영:1793)는 순조 즉위 직
후 수렴첨정하며 노론 벽파를 이끌던 정순왕
후에 혁파되었다(1802)

② 일제는 고종의 헤이그특사 사건을 빌미로
한·일 신협약(정미 7조약)을 체결하고 부속
각서를 통해 중앙의 친위대와 지방의 진위대
등 군대를 해산하였다(1907.8).

④ 세종 대에 왜구를 강력히 응징하기 위하
여 이종무를 시키어 왜구의 소굴인 쓰시마
섬을 토벌하였다(1419).

28. 다음 사건 이후에 전개된 사실로 옳은 것은?

[3점]



- ① 외척 간의 대립으로 을사사화가 발생하였다.
- ② 인현왕후가 폐위되고 남인이 권력을 장악하였다.
- ③ 공신 책봉에 불만을 품고 이괄이 반란을 일으켰다.
- ④ 서인과 남인이 두 차례에 걸쳐 예송을 전개하였다.
- ⑤ 이조 전랑 임명을 둘러싸고 사림이 동인과 서인으로 나뉘었다.

정답: ②

* 기사환국(1689)

숙종(1674~1720)은 인사 관리를 통하여 세력 균형을 유지하려는 탕평론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상황에 따라 한 당파를 일거에 내몰고 상대 당파에게 정권을 모두 위임하는 편당적인 인사 관리로 일관하여 한국이 일어나는 빌미를 제공하기도 하였다(일당 전제화).

한국을 왕이 직접 나서서 주도함에 따라, 외척이나 종실 등 왕과 직결된 집단의 정치적 비중이 커졌다. 정치 권력은 점차 고위 관원에게 집중 되었으며, 언론 기관이나 재야 사족의 정치 참여가 점차 어려워짐에 따라 봉당 정치의 기반도 무너졌다.

경신환국(1680): 유악(기름먹인 장막) 사건을 빌미로(실제는 도체찰사 문제) 서인이 남인(허적, 윤휴 등)을 몰아내고 집권. 남인에 대한 처벌을 놓고 서인의 노론(강경론), 소론(온건론) 분화

기사환국(1689): 남인이 원자(장희빈 소생) 정함에서 서인을 몰아내고 집권, 인현왕후가 폐위되고 송시열 등이 사사됨.

갑술환국(1694): 인현왕후(서인 옹호) 복위 관련, 남인이 쫓기고 서인(노론, 소론) 재집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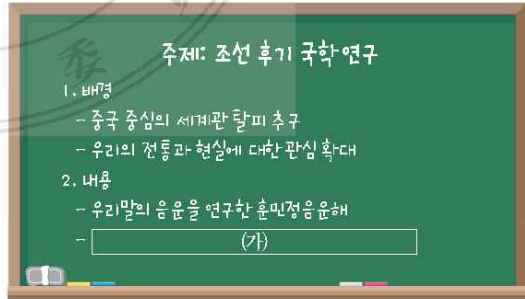
① 명종(1545~1567) 때에 왕위 계승을 놓고 외척인 소윤(윤원형)과 대윤(윤임)간의 권력 싸움과, 양편 모두에 사람이 가담하여 을사사화(1545)가 일어나 큰 희생을 당하였다.

③ 인조 반정(1623) 과정에서 공이 큰 이괄 2등 공신으로 한 것은 이괄의 난(1624)을 불러 일으키고 도성이 함락되고 공주로 피난가기 까지도 하였다.

④ 현종(1659~1674) 때에 효종의 왕위 계승에 대한 정통성과 관련하여 서인과 남인 사이에 두 차례의 예송(기해예송-1659, 갑인예송-1674)이 발생하였다.

⑤ 선조(1567~1608) 때에 인사권을 가진 이조 전랑의 임명 문제(김효원과 심충겸)와 공론을 둘러싸고 사림이 동인과 서인으로 나뉘는 것에서 봉당이 시작되었다(1575).

29.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2점]



<보 기>

- ㄱ. 남북국 시대론을 제시한 발해고
- ㄴ. 전국의 지리 정보를 정리한 팔도지리지
- ㄷ. 우리나라의 역사 지리를 정리한 이방강역고
- ㄹ. 고조선부터 고려까지의 역사를 정리한 동국통감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 ④ ㄴ, ㄹ ⑤ ㄷ, ㄹ

정답: ②

* 조선 후기 국학의 발달

조선 후기에 사회 현실에 대한 실학자들의 관심과 비판 의식은 우리의 역사, 지리, 언어, 풍속 등 국학 전반에 대한 연구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국학 연구가 활발해졌다.

역사 연구에서는 안정복은 '동사강목'을 지어 고조선부터 고려 말까지의 우리 역사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으며, 윤휴공은 '발해고'에서 발해의 역사를 우리의 역사로 본격적으로 다루었다.

지리학에서는 이중환과 정상기, 김정호가 유명하였다. 이중환은 우리 나라의 지리적인 환경과 함께 각 지역의 경제 생활과 풍속을 자세히 조사하여 '택리지'를 썼다. 이 책은 특히 자연과 인간 생활의 관계를 인과적으로 이해하려고 한 점에서 주목된다. 정약용도 안방강역고(1811)를 저술하여 고조선에서 발

해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 강역의 역사를 고증하였다. 정상기는 최초로 백 리를 한 자로 축소한 '동국지도'를 만들어 우리 나라의 지도 제작 수준을 한 단계 높였다. 신경준은 하천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산맥 체계를 도표로 정리한 산경표를 지었고, 김정호는 '대동여지도'에 산맥, 하천과 함께 도로망을 자세히 표시하였다.

조선 후기에 상업의 발달로 상권이 확대되어 교통로 등에 대한 관심이 점점 커지면서 지도도 점차 정밀하게 제작된 것이다.

국어에 대한 연구도 활발하여 음운 연구서인 신경준의 '훈민정음운해'와 유희의 '언문지'가 나왔다. 이들 연구에는 한글의 우수성에 대한 인식과 함께 문화적인 자아 의식이 잘 드러나 있다.

의학에서도 광해군 때에 허준이 '동의보감'을 펴내 우리나라뿐 아니라 중국 및 일본의 의학 발전에 큰 영향을 끼쳤다. 이 책은 예방 의학에 중점을 두고 전통 약재를 사용한 치료 방법을 개발한 것이 특색이다. 또, 고종 때의 이제마는 사람의 체질에 따라 처방을 달리하여야 한다는 사상의설을 주장하였다.

㉠ 조선 전기에는 전국 지도로 태종 때에 팔도도(1402, 현존하지 않음)를, 지리지로는 세종 때에 신찬팔도지리지(1432)를, 성종 때에 팔도지리지(1478)가 편찬되었다.

㉡ 조선 전기에 우리나라의 전체 역사를 편찬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성종 때에 동국통감이 간행되었다. 이 책은 고조선부터 고려 말까지의 역사를 정리한 편년체 통사로서, 서거정 등이 편찬하였다(1485).

30. (가)에 들어갈 세시 풍속으로 옳은 것은?

[1점]

봄의 첫 걸음, (가) 전통 문화 축제

강남 갔던 제비가 돌아와 새봄을 알린다는 (가)을/를 맞아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채로운 행사를 마련하였습니다.

- 일자: 2016년 ○○월 ○○일
- 장소: △△ 전통 문화 센터

〈체험 1〉

- 화전 만들기
 - 진달래꽃으로 장식한 화전 부치기

〈체험 2〉

- 노랑나비 날려 보내기
 - 이 날 노랑나비를 보면 길하다는 풍습에 따라 시민들에게 행운을 드리고자 살아있는 노랑나비를 날려 보내기



- ① 백중 ② 칠석 ③ 대보름
④ 삼짇날 ⑤ 한가위

정답: ④

* 삼짇날의 세시풍속

음력 3월 3일인 삼짇날에는 강남에 간 제비가 돌아와 추녀 밑에 집을 짓는다는 때로, 이 무렵이면 날씨도 온화하고 산과 들에 꽃이 피기 시작한다. 이 때에는 진달래꽃을 뜯어다가 쌀가루에 반죽하여 참기름을 발라 지지는 화전(花煎)을 먹거나, 녹두가루를 반죽하여 익힌 다음 가늘게 썰어 꿀을 타고 잣을 넣어서 먹는 화면(花麵)을 즐겨 먹는다.

① **백중(百中)**: 음력 7월 15일. 백중(百種)이라고도 하는데 이는 이 무렵에 과실과 소채(蔬菜)가 많이 나와 옛날에는 백가지 곡식의 씨앗(種子)을 갖추어 놓았다 하여 유래된 명칭이다. 이 때에는 각 가정에서 익은 과일을 따서 조상의 사당에 천신을 한 다음에 먹는 천신 차례를 지냈으며, 옛날에는 종묘에 이른 벼를 베어 제사를 드리는 일도 있었다. 농가에서는 이날이 되면 머슴을 하루 쉬게 하고 돈을 주었다. 머슴들은 그 돈으로 장에 가서 술도 마시고 음식을 사먹고 물건도 샀기에 '백중장'이라는 말이 생기게 되었다.

② **칠석(七夕)**: 음력 7월 7일. 헤어져 있던 견우(牽牛: 목동)와 직녀(織女: 베짜는 녀)가 만나는 날이라고도 한다. 이 때는 옷과 책을 햇볕에 말리는 폭의(曝衣)와 폭서(曝書) 풍속이 있었다. 여름 장마철에 장롱속의 옷가지와 책장의 책에 습기가 차면 곰팡이가 끼게 되므로 이를 막기 위한 것이다. 한편 여인들이 직녀성에 바느질 솜씨를 비는 걸교(乞巧) 풍속이 있었다.

③ **대보름**: 음력 1월 15일. 일명 상원(上元)으로 불리운다. 한해의 풍농(豐農)을 기원하는 의미로 쌀, 조, 수수, 팥, 콩 등을 섞어 지은 오곡밥을 먹고, 건강의 안녕을 기원하는 의미로 땅콩이나 잣, 호두, 밤 등 부럼을 자기 나이 수대로 깨물며 종기나 부스럼이 나지 않게 해달라고 기원하고, 일년 내내 기쁜 소식만 전해달라며 부녀자 애들 할 것 없이 귀밝이술(耳明酒)을 마신다.

⑤ **한가위**: 음력 8월 15일. 추석(秋夕)으로 불리우며 일 년 동안 기른 곡식을 거둬들인 햇곡으로 빚은 송편과 각종 음식을 장만하여 차례상을 차려 조상들에게 차례를 지내고 조상의 산소에 성묘를 한다.

31. 밑줄 그은 '이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전증일기는 조선 후기 평안도 가산과 광산 일대에서 일어난 이 사건의 진압 과정을 일기체로 기록한 것이다. 이 책에는 참여 세력에 대하여 “우군칙은 참모였으며, 이회저는 좌주(竊主)요, 김창시는 선봉이었다. 그리고 김사옹과 홍총각은 손과 발의 역할을 하였다. 그 줄개로는 의주로부터 개성에 이르는 지역 거의 대부분의 부호·대상(大商)이 망라되어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 ① 청의 군대에 의해 진압되었다.
- ② 선혜청과 일본 공사관을 공격하였다.
- ③ 몰락 양반 출신인 유계춘이 주도하였다.
- ④ 남접과 북접이 연합하여 조직적으로 전개하였다.
- ⑤ 세도 정치기의 수탈과 지역 차별에 반발하여 일어났다.

정답: ⑤

* 홍경래의 난(1811)

홍경래의 난은 세도정치에 시달리던 농민들과 부당한 차별 대우에 불만을 품어 오던 평안도 지방 사람들을 중심으로 하여, 몰락한 양반인 홍경래 등이 평안도에서 일으킨 농민 봉기였다(1811). 몰락한 양반인 홍경래의 지휘 하에 우군칙, 홍총각 등이 주도하며 영세 농민, 중소 상인, 광산 노동자 등이 합세하였다.

이들은 처음 가산에서 난을 일으켜 선천, 정주 등을 별다른 저항없이 점거하였다. 한때는 청천강 이북 지역을 거의 장악하였으나 정주성 싸움에서 패하여 진압되었다 5개월 만에 평정되었다.

홍경래의 난은 평안도의 농민이 하나로 뭉쳐 탐관오리의 착취와 지방 차별에 반대한 농민 항쟁이었다. 이 난은 평안도 지역에 한정되어 일어났고, 지도자들이 농민층을 조직적으로 끌어들이 개혁안을 내놓지 못함으로써 실패로 돌아갔다. 그러나 정부에 큰 타격을 주었으며, 그 뒤에 발생한 농민봉기에 커다란 영향을 끼쳤다.

① 임오군란(1882.6), 갑신정변(1884.12)이 청에 의해 진압되었다.

② 임오군란 때에 구식군대들이 난을 일으켜 선혜청과 일본공사관을 습격하였다.

③ 임술농민봉기(1862) 당시 진주에서 잔반 출신 유계춘이 민란을 주도하였다.

④ 1894년 동학농민운동 당시 2차 봉기 때에는 남접과 북접이 연합하여 항일구국 투쟁을 벌였다.

32. (가) 인물이 실시한 정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점]



자료는 고종의 즉위로 권력을 장악한 (가) 이/가 쓴 편지이다. 그는 이양선(異樣船)의 접근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서리와 장교를 상인으로 위장시켜 서서히 동정을 살펴라고 하고 있다. 이 편지를 통해 서양 세력의 침략적 접근에 대처하고자 했던 그의 통상 수교 거부 의지를 단편적으로나마 살펴볼 수 있다. 이러한 통상 수교 거부 의지는 신미양요 직후 그가 세운 척화비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 ① 속대전을 편찬하여 통치 체제를 정비하였다.
- ② 국가 재정 확충을 위해 호포제를 실시하였다.
- ③ 삼군부를 부활시켜 군국 기무를 전담하게 하였다.
- ④ 경복궁을 중건하여 왕실의 권위를 세우고자 하였다.
- ⑤ 사창제를 실시하여 환곡의 폐단을 시정하고자 하였다.

정답: ①

* 흥선 대원군의 개혁

고종의 즉위로 정치적 실권을 잡은 흥선 대원군(1863~1873년 집권)은 왕조의 위기를 극복하고 실추된 왕권을 회복하고자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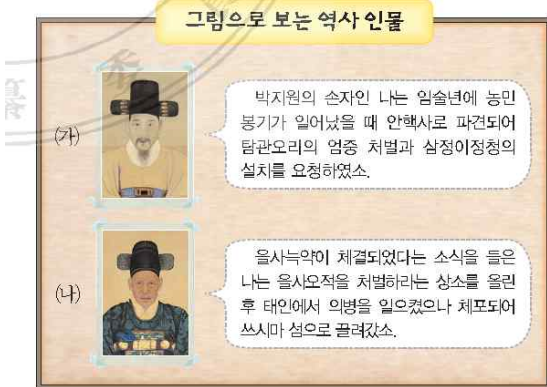
즉, 능력 위주의 인재 등용, 경복궁 중건, 비변사 폐지, 의정부(정무)와 삼군부(군국기무)의 기능 회복, 대전회통 편찬 등으로 왕권을 강화하였다.

또, 봉당의 근거지로 인식되어 온 서원을 47 개소만 남기고 철폐하는 동시에, 농민 봉기의 원인으로 지목된 삼정을 개혁하여 (양전 사업으로 은결 색출, 호포제로 군정 문제 해결, 사창제로 환곡 문제 해결) 국가 재정을 확충하고 민생을 안정시키려 노력하였다.대외적으로는 프랑스와의 병인양요(1866), 미국과의 신미양요(1871)를 물리치면서 전국에 척화비를 세우고, 통상 수교 거부 정책을 확고하게 유지하였다.

① 영조(1724~1776)는 속대전(1746)을 편찬하여 통치체제를 정비하였다.

33. (가), (나) 인물의 활동으로 옳은 것은?

[2점]



- ① (가) - 대동강으로 침입한 제너럴 서먼호를 불태웠다.
- ② (가) - 북학의를 저술하여 청의 문물 수용을 주장하였다.
- ③ (나) - 대한 광복회를 조직하여 친일 부호를 처단하였다.
- ④ (나) - 조선책략 유포에 반발하여 영남 만인소를 주도하였다.
- ⑤ (가), (나) - 통상 개국론을 통해 문호 개방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정답: ①

* 박규수와 최익현

(가) **박규수**(1807~1876): 조선 후기의 실학자였던 박지원의 손자로 청에 사신으로 다녀오면서 근대 문물에 눈을 떴다. 특히 청이 열강에게 침략 당하는 것을 목도하며 열강의 군사적 침략을 피하기 위해서는 조선의 문호 개방이 불가피하다고 역설하였다(통상개국)

임술농민봉기(1862) 때에는 진주민란의 안핵사로 파견되어 민란의 원인이 삼정의 문란에 있다고 보고 그 수습책을 삼정이정청에서 찾아 동년 5월 삼정이정청이 설립케 하였다.

또한 그는 비록 통상개화론자이지만 평양 감사로서 통상을 요구하며 만행을 부린 미 상선 제너럴 서먼호를 군민과 함께 불태웠다 (1866).

(나) **최익현**(1833~1906): 가난한 선비 집안의 아들로 태어나 이항로의 제자로 들어가 과거에 급제하여 이조 전랑까지 역임하였다. 그는 흥선 대원군의 경복궁 중건과 당백전 발행, 서원 철폐에 반대하는 상소를 올려 하야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으며, 뒤이어 집권한 민씨 세력과도 일본과의 수교 문제로 대립하였다.

그리하여 강화도 조약(1876) 때에는 왜양일체론에 입각하여 지부복결(도끼를 메고 곁에 엮드림)의 5불가 척화 상소를 올렸다. 그는 여기서 일본을 포함한 외래 자본주의의 침략적 본질과 해독성을 날카롭게 간파하였다

63세 되던 해(1895) 최익현은 명성 황후 시해 사건에 반발하였고, 단발령에도 “내 목을 자르지언정 머리카락은 자를 수 없다”며 강력하게 저항하였다.

을사조약(1905.11)이 체결되자 70세가 넘는 나이에도 의병을 지휘하다 체포당하였다. 결국 쓰시마 섬(대마도)으로 유배되었고 단식 끝에 순국하였다.

② 중상적 실학자 박제가(1750~1805)는 청에 다녀온 후 북학의(1778)를 저술하여 청의 문물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것을 제창하였다.

③ 박상진(1884~1921)은 대한광복회(1915)를 조직하여 친일부호 처단과 군자금 모집에 나섰다.

④ 퇴계 이황의 후손인 이만손(1811~1891)은 1881년 김홍집이 소개한 ‘조선책략’에 대하여 홍재학과 함께 개화정책에 반대하는 영남만인소를 주도하였다.

34. 다음 조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일본국 정부의 특명전권변리대신 육군중장 겸 참의 개척장관 구로다 기요타카와 특명부전권변리대신 의관 이노우에 가오루가 조선국 강화부에 와서 조선국 정부의 판중추부사 신현과 부총판 윤자승과 함께 각기 받은 유지에 따라 의결한 조관을 아래에 열거한다.

제1관 조선국은 자주 국가로서 일본국과 평등한 권리를 보유한다.

...

제7관 조선국 연해의 섬과 앞초는 종전에 자세히 조사한 적이 없어 지극히 위험하므로 일본국 항해자가 수시로 해안을 측량하는 것을 허락하여 위치와 깊이를 재고 지도를 제작하여

- ① 갑신정변이 원인이 되어 체결되었다.
- ② 조약 체결에 반대하여 민영환이 자결하였다.
- ③ 천주교의 포교를 허용하는 조항이 들어 있다.
- ④ 외국에 대한 최혜국 대우를 처음으로 규정하였다.
- ⑤ 부산 외 2곳의 항구가 개항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정답: ⑤

* 강화도 조약(1876.1)

1873년에 고종의 친정으로 흥선 대원군이 물러나고 민씨 세력이 집권하면서 개항과 통상 무역을 주장하는 집단이 정치적으로 성장하였다. 이런 움직임 속에서 일본은 한반도 침략을 노리며 운요호 사건(1875)을 일으켰다. 이를 계기로 조선은 일본과 강화도 조약을 맺어 나라의 문을 열었다(1876.1).

강화도 조약은 우리 나라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었지만, 부산 및 다른 두 곳(원산, 인천)을 개항해야 했으며, 일본에 치외법권(영사 재판권)과 해안 측량권 등을 내준 점에서 불평등 조약이었다.

① 갑신정변(1884.12) 직후 조선은 정변에 관여하여 주권을 침해한 일본에 엄중히 항의하였으나, 일본은 무력을 동원하여 정변 때 죽은 일본인에 대한 배상과 불에 탄 일본 공사관의 신축비 보상을 요구하였다. 조선은 한성 조약(1885.1)을 체결하여 일본의 요구를 수용하였다.

② 민영환(1861~1905)은 외교권을 빼앗기는 을사조약(1905.11) 체결 때에 시종무관으로 좌천되어 막아내지 못하자 동포에게 전하는 유서를 남기고 자결하였다.

③ 조불수호통상조약(1886.5)을 통해 천주교 포교가 허용되었다

④ 최혜국 대우는 조미수호통상조약(1882.5) 때 처음 나타났으며, 일본과는 1883년 조일 통상장정 개정 때에 허용되었다.

35. (가), (나) 사절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개화 정책의 추진과 사절단 파견>

○ (가)

- 대표: 김기수
- 파견 시기: 1876. 4. ~ 1876. 6.
- 활동: 친척 기관과 근대 시설 시찰
이토 히로부미 등 주요 인사와 만남

○ (나)

- 대표: 김윤식
- 파견 시기: 1881. 9. ~ 1882. 11.
- 활동: 전기, 화학, 제련 등 선진 과학 기술과 외국어 학습
임오군란으로 1년여 만에 조기 귀국

- ① (가) - 에도 막부의 요청으로 파견되었다.
② (가) - 암행어사의 형태로 비밀리에 파견되었다.
③ (나) - 조·미 수호 통상 조약의 체결로 파견되었다.
④ (나) - 무기 제조 공장인 기기창 설립의 계기가 되었다.
⑤ (가), (나) - 고종이 대한 제국을 선포한 이후 파견되었다.

정답: ④

* 개항 이후의 사절단 수신사와 영선사

강화도 조약(1876.1)이 체결된 뒤 조선 정부는 개화정책을 추진하였다.

이를 위해 정부는 통리기무아문(1880.12)을 설치하고 그 아래에 12사를 두어 외교, 통상, 재정, 군사 등의 업무를 맡게 하였다. 그리고 군사력 강화를 위해 종래의 5군영을 무위영과 장어영의 2군영으로 통합 개편하는 한편 신식 군대인 별기군을 신설하였다(1881, 교관 일본인).

이에 따라 김기수(1876)와 김홍집(1880)이 일본에 수신사로 다녀와 일본의 발전된 모습을 국왕에게 보고하였다. 이어서 정부는 일본의 도움없이 자체적으로 박정양을 조사로 하여 젊은 관리들을(조사 시찰단) 암행어사 형식으로 임명하여 일본에 파견하였다(1881.4). 이들은 여러 정부 기구와 산업 시설, 문화 시설 등을 시찰하게 하고, 귀국 후 각자 여행기와 시찰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왕에게 제출하였다. 이는 정부의 개화정책 추진에 도움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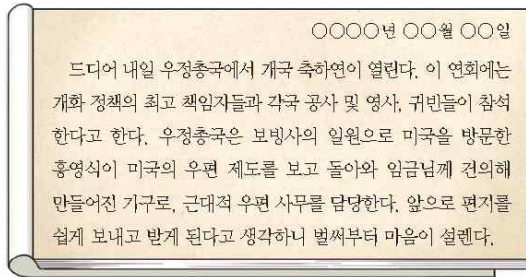
또, 정부는 청에도 김윤식을 영선사로 하여 젊은 학생과 기술자들을 파견하여(1881.9) 텐진에서 근대 무기 제조 기술과 군사훈련법을 배우게 하였다. 비록 학생들은 근대 기술에 대한 기본 지식과 정부의 재정 지원이 부족하여, 기술을 제대로 배우지 못한 채 1년 만에 돌아왔으나 이를 계기로 근대식 무기 제조 공장인 기기창이 세워졌다(1883).

조·미 수호 통상 조약 체결(1882.5)에 따라 조선 주재 미국 공사가 파견되자 정부는 미국에 보빙사를 파견하였다(1883.7). 민영익, 홍영식이 이끄는 보빙사 일행은 서양 국가에 파견한 최초의 사절단으로 40여일의 기간 동안 미국 대통령을 만나고 박람회, 병원, 신문사, 육군사관학교 등을 시찰하였다.

① 에도 막부는 1868년 메이지 유신으로 막을 내렸다.

⑤ 대한제국은 1897년 10월에 선포되었다.

36. 다음 가상 일기가 쓰인 이후의 사실로 옳지 않은 것은? [1점]



- ① 독립 협회가 만민 공동회를 개최하였다.
- ② 서울과 인천을 연결하는 철도가 개통되었다.
- ③ 함경도 덕원 주민들에 의해 원산 학사가 세워졌다.
- ④ 황실이 자본을 투자한 한성 전기 회사가 설립되었다.
- ⑤ 최초의 서양식 극장인 원각사에서 은세계가 공연되었다.

정답: ③

* 갑신정변 이후의 역사적 사실

김옥균 등 급진개화파는 빨리 근대국가를 이루고자 일본의 군사적 지원을 받아 우정국 개국 축하연을 이용하여 갑신정변을 일으켰다(1884.12). 이들은 청과의 의례적 사대 관계를 폐지하고, 입헌 군주제적 정치 구조(국왕의 권한 제한)를 지향하면서, 인민 평등권과 능력에 따른 인재 등용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개화파 정권은 청군의 개입으로 3일 만에 무너지고 말았다. 이는 갑신정변 추진 세력의 정치·군사적 기반이 약했고, 민중의 지지 속에 정변을 성공시키기보다는 외세에 의존하는 방법을 택하였기 때문이었다.

① 아관파천(1896.2) 이후 러시아의 간섭과 이권 침탈이 심해지자 독립 협회는 자주 국권 확립을 촉구하는 구국 선언 상소문(1898.2)을 올리고, 종로에서 만민 공동회(1차: 1898.3)를 열어 자주 국권 운동을 전개하였다.

② 우리나라 최초의 철도인 경인선은 1896년 미국인 J.R.모스가 한국 정부로부터 부설권을 얻어, 1897년 3월 29일 인천에서 공사에 착수하였으나 자금부족으로 중단된 후 일본인이 경영하는 경인철도회사가 부설권을 인수하여 1899년 4월부터 다시 공사를 시작, 그 해 9월 18일 제물포(인천)~노량진 사이 구간을 개통하였다. 1900년 7월 5일 한강철교가 준공되자, 같은 해 7월 8일 노량진~서울(서대문) 사이가 개통되어 서울~인천이 완전히 연결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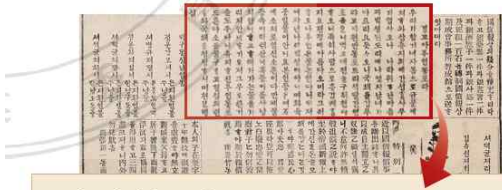
③ 개항 이후 개화 정책이 추진되는 가운데 1883년 봄, 함경도 덕원 주민들에 의해 최초의 근대 학교인 원산학사가 설립되어 근대 학문과 무술을 가르쳤다.

④ 1899년에 황실과 미국인의 합작으로 세워진 한성 전기 회사는 발전소를 세우고 서울에 전등과 전차를 가설하였다. 전차는 서대문과 청량리 사이를 최초로 운행하였다.

⑤ 1908년 최초의 서양식 극장인 원각사에서 이인직의 '은세계'가 공연되며 신극 운동이 시작되었다.

37. 다음 자료에 해당하는 민족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경고 아부인 동포라

우리가 함께 여자의 몸으로 규문에 처하와 삼중지의에 간섭할
사무가 없사나, 나라 위하는 마음과 백성 된 도리에야 어찌 남녀가
다르리오, 듣사오니 국채를 갚으려고 이천만 동포들이 석 달간 연초를
아니 먹고 대전을 구워한다 하오니, 족히 사람으로 흉감케 할지요 잔정에
아름다움이라

- ① 근우회의 주도로 전개되었다.
- ② 평양에서 시작되어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 ③ 조선 사람 조선 것 등의 구호를 내세웠다.
- ④ 러시아의 절영도 조차 요구를 저지시켰다.
- ⑤ 서상돈, 김광제 등의 발의로 본격화되었다.

정답: ⑤

* 국채보상운동(1907)

대한제국은 통감부가 설치된 이래 주로 한국에 거주하는 일본인을 위한 각종 생활 시설 마련과 화폐 리 사업 과정에서 대한 제국의 1년 예산과 맞먹는 1,300만 원의 채무를 지게 되었다. 애국적 지식인들은 일본에게 진 빚을 갚는 것이 경제적 자주권을 유지하는 길이라고 여겼다. 이에 국민의 성금으로 국채를 보상하자는 운동이 일어났다(1907).

이 운동은 대구 광문사의 서상돈, 김광제 등의 주도하에 시작되었다. 그 후 각종 계몽 단체와 대한매일신보, 황성신문, 제국신문, 만세보 등의 언론 기관이 참여하는 가운데 서울에서 결성된 국채보상기성회(김성희, 유문상 등)를 중심으로 각계각층의 호응을 받으며 전국 및 해외(일본 유학생 및 러시아 교민도 참여)로까지 확산되었다. 남자들은 금연으로, 부녀자들은 반지와 비녀를 모아 보상금으로 냈다.

이에 대해 일제는 송병준 등 친일파가 지휘 하던 매국단체 일진회를 이용하여 방해하고, 통감부에서 국채보상회의 간사인 양기탁을 보상금횡령이라는 누명을 씌워 구속하는 등 적극적으로 탄압했다. 결국 양기탁은 무죄로 석방되었지만 국채보상운동은 더 이상 진전 되지 못하고 좌절되고 말았다. 이 운동은 우리 민족의 강렬하고 자발적인 애국정신이 발휘된 국권회복운동으로 평가된다.

① 신간회(1927~1931)의 자매 단체로 근우회(1927~1931)가 설립되어 여성 계몽활동과 함께 여성 노동자의 권익 옹호에 앞장섰다

②, ③ 1920년대 초 민족 기업을 육성하여 경제 자립을 이루자는 물산장려운동은 1920년대 초부터 “조선 사람 조선 것, 내 살림 내 것으로”라는 구호를 내걸고, 평양에서 시작되어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그러나 한국인이 경영한 기업이 총독부의 지원을 받는 일본인 대자본과 경쟁하기는 어려웠다.

④ 1897년 러시아는 자국 선박의 연료 공급을 위해 절영도(오늘날의 부산 영도) 저탄소 조차를 시도하였으나, 1898년 3월부터 진행된 독립협회와 만민공동회의 이권수호운동으로 인해 좌절되었다.

38. (가) 기구에서 추진한 개혁으로 옳은 것은?

[3점]

파리의 외무부 장관 각하께

일본군이 경복궁을 점령한 후, 조선 왕은 일본 공사 오토리의 요청에 따라 (가) 을/를 구성해야 했습니다. 이 기구는 의정부 영의정 김홍집이 총재를 겸임합니다. 새로운 기반 위에 중앙 정부를 조직한 후, (가) 은/는 활동을 계속했고 행정, 재정, 법률 분야에서 여러 개혁안을 차례로 채택했습니다. 개혁에 관한 목록도 동봉하는 바입니다.

주 조선 프랑스 공사 올림

- ① 건양이라는 연호를 제정하였다.
- ② 신식 군대인 별기군을 창설하였다.
- ③ 양전 사업을 실시하여 지계를 발급하였다.
- ④ 지방 행정 구역을 8도에서 23부로 개편하였다.
- ⑤ 공사 노비법을 혁파하고 과부의 재가를 허용하였다.

정답: ⑤

* 군국기무처와 1차 갑오개혁(1894. 7~12)

동학 농민 운동(1894)은 그 동안 쌓인 잘못된 정치를 바로잡기 위한 개혁의 실마리를 제공하였다. 조선 정부는 교정청을 설치하여 농민들이 제기한 문제를 중심으로 정치 개혁을 실시하려 하였다. 그러나 정부 내에 개혁을 반대하는 세력도 강하였다.

이 때, 일본군은 경복궁을 포위하고 민씨 세력을 몰아 낸 후 흥선 대원군을 앞세워 개혁에 앞장서도록 하였다(1894.7.23). 이에 김홍집을 총리로 하는 새 내각이 구성되고, 개혁의 추진을 위해 군국기무처가 신설되었다(7.27). 군국기무처는 김홍집(총재), 박정양(부총재), 김윤식, 김가진 등의 반청, 반민씨 척족 성향의 온건개화파로 구성된 주요 임시기관으로서 정치, 경제, 사회 등 국가의 주요 정책에 대한 개혁안을 심의하였다(1차 갑오개혁: 1894. 7~12).

당시 일본은 청과의 전쟁에 힘을 쏟고 있었기 때문에 개혁은 비교적 일본의 간섭을 받지 않고 진행되었다.

<1차 갑오개혁의 주요 내용>

정치: 국정과 왕실 사무를 분리하여 국정은 의정부, 왕실 사무는 궁내부가 담당하게 하였고, 의정부 산하의 6조는 8아문으로 개편되었다. 청의 연호를 폐지하고 개국 연호를 사용하였으며, 과거제를 폐지하고 근대적 관리 임명 제도를 마련하였다.

경제: 탁지아문이 재정에 관한 모든 사무를 관장하도록 하였으며, 상품의 원활한 유통을 위해 은본위 화폐 제도와 조세 금납제를 시행하였다.

사회: 신분 제도를 폐지하고(공.사 노비 혁파) 조혼을 금지하였으며 과부의 재가를 허용하고 고문과 연좌제 등 봉건적인 악습을 혁파하였다.

① 을미개혁(1895.8~1896.2) 때에 '건양' 연호를 사용하였다.

② 개항(1876) 이후 군사력 강화를 위해 종래의 5군영을 무위영과 장어영의 2군영으로 통합 개편하는 한편 신식 군대인 별기군을 신설하였다(1881, 교관 일본인).

③ 광무개혁(1897~1904) 때에 양전사업을 실시하고 지계(토지문건)를 발급하였다.

④ 2차 갑오개혁(1894.12~1895.7) 때에 전국 8도를 23부로 개편하였다.

39. 다음 수행 평가의 보고서 제목으로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2점]

수행 평가 안내

- 주제: 일제 강점기 식민 사학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
- 조사 내용: 한국사의 타율성과 정체성, 당파성 등을 강조한 식민 사학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조사하여 보고서로 제출할 것
- 분량: A4 용지 3매
- 제출 기한: 2016년 ○○월 ○○일 ○○시까지

— <보 기> —

ㄱ. 이종휘, 동사를 저술하다
 ㄴ. 신채호, 조선 상고사를 저술하다
 ㄷ. 조선사 편수회, 조선사를 편찬하다
 ㄹ. 백남운, 조선사회경제사를 저술하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정답: ④

* 식민사관에 대항한 여러 역사 연구

일제는 식민지 지배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1925년 조선사 편수회를 설치하여 조선사, 조선사료총서, 조선사료집 등을 간행하며 한국사를 왜곡하였다

일제는 한국사의 타율성과 정체성을 강조하는 등 우리 역사를 왜곡하였다. 일제의 식민지 사관은 한국인에게 주체성과 민족적 자긍심을 박탈하여 일제의 지배를 숙명으로 받아들이도록 한 것이다.

이에 대응하여 민족주의 사학자들은 한국사의 발전 주체가 우리 민족임을 강조하면서 식민주의 사학의 허구성을 밝히는 데 힘을 기울였다. 박은식은 대한 민국 임시 정부에 참여하면서 ‘한국 통사’와 ‘한국 독립 운동 지혈사’를 저술하여 일제의 불법적인 침략을 규탄하였다. 신채호는 조선 상고사와 조선사 연구초를 지어 우리 고대 문화의 우수성과 독자성을 강조하여 식민주의 사관을 비판하였다. 정인보는 ‘조선의 얼’을 강조하며 신채호의 민족주의 사관을 계승하였고, 그 밖에 문일평(조선심 강조), 안재홍(신민족주의 역사학), 남궁억 (역사교육 강조)등도 민족의 자주성과 독창성을 조명하여 일제의 식민주의 사관을 비판하였다.

한편 1930년대에는 백남운 등에 의해 사회경제사학이 대두되었다. 이들은 마르크스의 유물사관을 바탕으로 한국사가 세계사의 보편적 발전 법칙에 입각하여 발전하였음을 강조하면서 식민주의 사관의 정체성 이론을 반박하였다. 한편 일본인 학자들이 만든 청구학회에 대응하여 한국 학자들이 세운 국학연구 단체인 진단 학회(이병도, 손진태 등)를 중심으로 실증주의 사학도 발달하였다.

㉠ 이종휘는 동사(1803)에서 고구려 역사 연구를, 규장각 검서관 출신 유득공은 발해고(1784)에서 발해사 연구를 심화하였다. 이들은 고대사 연구의 시야를 만주 지방까지 확대시킴으로써 한반도 중심의 협소한 사관을 극복하는 데 힘썼다.

40. 밑줄 그은 '의병'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점]



이 유물은 의암 유인석이 입던 평상복으로 등록 문화재 제661호로 지정되었다. 유인석은 위정척사 사상의 거두인 이항로의 문자로, 그가 복수보형*의 기치 아래 일으킨 의병은 제천·충주 등지에서 크게 기세를 떨쳤다.

*복수보형(復讐報形): 국모의 원수를 갚고 전통을 보전함

- ① 단발령의 시행에 반발하여 봉기하였다.
- ② 해산 군인의 합류로 군사력이 강화되었다.
- ③ 봉오동에서 일본군을 상대로 승리를 거두었다.
- ④ 조선 총독부에 국권 반환 요구서를 발송하였다.
- ⑤ 국제법상 교전 단체로 승인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정답: ①

* 을미의병(1895~1896)

일본의 침략에 맞선 강력한 저항은 의병 활동으로 나타났다. 최초의 의병은 을미사변과 단발령을 계기로 시작된 을미의병이었다(1895~1896).

위정척사 사상을 가진 유생들이 주도하고 농민들이 가담한 을미의병은 아관 파천 이후 고종의 해산 권고 조치가 내려지자 스스로 해산하였다. 그러나 일부는 활빈당에 가담하여 반침략 반봉건 투쟁을 이어나갔다. 대표적인 의병장으로는 유인석(제천, 1842~1915), 이소응(춘천, 1852~1930) 등이 있다.

의병 항쟁은 외교권을 박탈당한 을사조약을 전후하여 다시 일어났다(1905~1906, 을사의병). 전직 관리 출신인 민종식(1861~1917)은 충청도 홍성 일대를 무대로 전과를 올렸으며, 흥선 대원군 하야 상소와 개항 반대 상소로 유명한 최익현(1833~1906)은 전라도 태인에서 임병찬 등의 제자들과 함께 의병을 일으켰다가 체포되어 쓰시마 섬에서 순절하였다. 특히 경상도 일월산을 거점으로 활동한 신돌석(1878~1908)은 평민 의병장으로서

3천여 명의 의병을 이끌고 일본군과 유격전을 벌여 큰 전과를 올려 태백산 호랑이로 불리울 정도였다.

헤이그 특사 사건으로 인한 고종의 강제 퇴위와 군대해산으로 인하여 정미의병(1907~1908)이 일어났다. 해산된 군인들이 합류하여 조직력과 화력이 강화되어 조직적인 의병전쟁으로 발전하였다. 또한 13도의 의병이 총 합류하여 각국 공사관에 국제법상 교전단체로 인정해 줄 것을 통보하고 서울로 단번에 진공하는 서울진공작전(1908)을 추진하였으나 지도부의 문제(부친상을 당한 총대장 이인영의 낙향과 신돌석, 홍범도 등의 평민 출신 의병장 배제)로 실패하였다. 대표적인 의병장으로는 이인영(1868~1909), 허위(1855~1908) 등이 있다

그럼에도 의병 전쟁은 이후 각 지역별로 활발히 이루어져, 북부 지역에서는 북간도와 연해주에서 두만강을 도하하여 국내로 진공하려는 이범윤, 안중근의 연추 의병 부대(1908.7~9)와 이에 호응하려는 삼수, 갑산 일대의 포수 출신 홍범도, 차도선 부대의 활약이 있었다.

한편 남한에서는 전라도 지역을 중심으로 의병 활동이 치열하게 전개되었으나 일제가 벌인 1909년의 대규모 군사 작전(남한 대토벌 작전)으로 점차 약해졌다. 이에 의병 부대들은 만주나 연해주로 이동하여 독립군 기지 건설 운동과 독립군 활동을 전개하였다.

③ 최익현의 제자 임병찬이 1912년 조직한 독립의군부는 고종의 밀지에 따라 의병을 모으고, 총독부에 국권반환요구서를 제출하며 대한제국을 재건하고자 하는 복벽주의를 추구하다 발각되어 해체되었다(1916).

④ 홍범도(1868~1943)가 이끄는 대한독립군이 중심이 되어 봉오동에서 일본군을 대파하였다(1920.6)

41.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2점]

○○○ 연보

1898년	경상남도 밀양 출생
1919년	의열단 조직
1926년	황푸 군관 학교 졸업
1935년	민족혁명당 결성
1938년	(가)
1942년	한국광복군 제1지대장 취임



- ① 하얼빈 역에서 이토 히로부미 사살
- ② 민족의식 고취를 위해 명동 학교 설립
- ③ 홍커우 공원에서 일본군 장성과 고관 처단
- ④ 조선 혁명군을 이끌고 영릉가 전투에서 승리
- ⑤ 중국 우한에서 군사 조직인 조선 의용대 창설

정답: ⑤

* 김원봉과 조선 의용대

경남 밀양 출신인 김원봉은 1919년 11월 만주 지린성에서 의열단을 조직하였다. 당시 만주와 중국 본토에서 조직된 독립운동단체들이 미온적이고 온건하다고 본 의열단은 직접적 투쟁방법인 암살과 파괴·테러라는 과격한 방법을 통해 독립운동을 해나기로 했다. 김상옥(1923, 종로경찰서 폭탄 투척), 김익상(1921, 조선총독부 폭탄 투척), 나석주(1926, 동.척과 식산은행 폭탄 투척) 등의 의거가 대표적이다.

그러나 김원봉은 1925년 이후로 노선을 바꿔 중국 황푸 군관학교에 입교한 이래로 이 학교에 포진된 공산주의 교수진의 영향을 받아 점차 의열단과 지도부는 정당 조직(후일 1935년 민족혁명당 결성)과 군사 조직(후일 1938년 조선 의용대 결성) 형성의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었다.

1935년 중국 관내에서 민족유일당으로 형성된 조선 민족 혁명당은 1937년 중·일 전쟁이 시작되자 공산주의 정당과 연합하여 조선 민족 전선 연맹을 결성하고 중국 국민당의 지원을 받아 우한에서 조선 의용대를 창설하였다(1938).

조선 의용대는 중국 국민당 군대와 함께 선전 활동, 일본군 포로 심문 등을 수행하였으나, 일부는 중국 국민당의 과도한 통제와 소극적 항일 투쟁에 반발해 화북 지역으로 이동하여 조선 독립 동맹 및 조선의용군을 결성하는 데 중심적인 역할을 하였다(1942).

조선의용군은 중국 공산당군(팔로군)의 지원을 받으며 함께 태항산 전투, 호가장 전투 등에 참가하였다. 그러나 조선 의용대의 대원이 화북 지역으로 이동한 후 김원봉과 남은 세력들은 임시정부(군무부장)와 한국 광복군(1지대장)에 합류하였다(1942).

① 안중근(1879~1910)은 하얼빈에서 을사조약의 원흉이자 초대 통감인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하였다(1909.10)

② 북간도에 소재한 명동학교는 간민회 출신의 김약연(1868~1942)이 설립하였다(1908).

③ 김구가 이끄는 한인 애국단 소속의 윤봉길(1908~1932)은 상해 홍커우 공원에서의 폭탄을 투척하여 일본 육군 대장 시라카와 등 많은 고관들을 살상하였다(1932.4).

④ 1930년대 초 남만주 지역에서 조선 혁명군을 이끈 양세봉(1896~1934)은 중국 의용군과 연합하여 흥경성, 영릉가 전투의 대일 승리를 이끌어냈다.

42. 다음 대화에 나타난 일제의 정책이 시행된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적절한 것은? [1점]



- ① 태형을 집행하는 헌병 경찰
- ② 회사령을 공포하는 총독부 관리
- ③ 암태도 소작 쟁의에 참여하는 농민
- ④ 황국 신민 서사 암송을 강요받는 학생
- ⑤ 조선 민립 대학 기성회에 성금을 내는 상인

정답: ④

* 민족말살기(1931~1945)의 모습

1930년대에는 만주사변(1931)을 일으키고 만주국(1932)을 수립하며 대륙 침략을 본격화하면서 한반도를 대륙 침략의 병참기지로 삼았다.

중일전쟁(1937)과 태평양 전쟁(1941)을 일으키며 우리 민족을 전쟁에 동원시키기 위하여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완전히 말살 하려는 황국신민화 정책과 국가총동원령(1938)을 제정하여 인적·물적 자원의 수탈을 더욱 강화하였다(민족말살기).

이 시기 일제는 내선 일체의 구호를 내세워 우리 말과 글을 쓰지 못하게 하였고, 성과 이름까지 일본식으로 고쳐 쓰도록 하였으며 (창씨개명, 1939), 황국신민서사(1937) 암송, 궁성요배, 신사참배 등을 강요하였다.

인적, 물적 수탈로는, 국민징용령(1939)으로 한국인 노동력을 착취하였고, 학도 지원병 제도(1943), 징병 제도(1944) 등을 실시하여 수많은 우리 젊은이를 전쟁에 동원하였다. 또, 젊은 여성을 정신대(1944)라는 이름으로 강제 동원하여 군수 공장 등에서 혹사시켰으며, 그 중 일부는 전선으로 끌고 가 일본군 위안부로 삼는 만행을 저질렀다.

전쟁으로 인해 식량이 부족하자 양곡 배급제와 함께 미곡공출을 실시하였고(1940), 물자 부족이 심화되자 일제는 군수 산업 이외의 기업 활동을 통제하기도 하였으며, 광물 자원의 약탈은 물론 학교의 철문이나 집안의 손가락까지 강제로 빼앗아 갔다(금속 공출, 1942)

①, ② 1910년대 무단통치기에 일제는 조선인에게만 적용되는 야만적인 형벌인 조선 태형령(1912~1920)을 실시하였고, 회사령(1910~1920)을 공포하여, 회사를 설립하거나 해산할 때에 총독의 허가를 받도록 하여 자유스러운 민족 기업 설립을 방해하였다. .

③ 1923년의 전남 신안군의 암태도 소작 쟁의(암태 소작회 주도)는 한국인 지주와 일본 경찰에 맞서 1년간 싸워 소작료 인하를 관철시킨 소작쟁의의 대표적 사례이다.

⑤ 한국인을 위한 고등 교육 기관인 민립 대학 설립 운동이 조선 민립 대학 기성회(1923)를 중심으로 '한민족 1천만이 한사람이 1원씩'이라는 구호와 모금운동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일제의 감시와 탄압으로 모금운동이 쉽지 않았고, 1920년대 중반의 연이은 자연재해로 모금 운동이 중단되었다.

43. 다음 자료에 나타난 민족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어제 오전 8시에 돈화문을 떠나기 시작한 순종 황제의 인산 행렬이 황금정 거리에까지 뻗었다. 대여(大輿)가 막 관수교를 지나가시며 그 뒤에 아왕 전하, 이강 공 전하가 타신 마차가 지나는 오전 8시 40분경에 그 행렬 동편에 학생 수십 명이 활판으로 인쇄한 격문 수만 매를 뿌리며 조선 독립 만세를 불렀다. 이러한 소동 중에 바람에 날리는 격문이 이왕 전하 마차 부근에까지 날렸으며, 경계하고 있던 경관과 기마 경관대는 학생들과 충돌하였다. …… 현장에서 학생 30여 명이 체포되었고 …… 시내 장사동 247번지 부근에서도 시내 남대문로 세브란스 의학 전문 학생이 격문을 뿌리다가 현장에서 4명이 체포되었다더라.

- ①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수립에 영향을 주었다.
- ② 신간회 중앙 본부가 진상 조사단을 파견하였다.
- ③ 민족주의 진영과 사회주의 진영이 함께 준비하였다.
- ④ 한국인 학생과 일본인 학생 간의 충돌이 발단이 되었다.
- ⑤ 일제 통치 방식이 이른바 문화 통치로 바뀌는 계기가 되었다.

정답: ③

* 6.10 만세운동(1926)

3.1 운동(1919) 이후 1920년대에 들어 사회주의가 국내에 본격화되고 학생들의 의식의 커지게 되었다.

사회주의자와 조선 학생 과학 연구회를 중심으로 한 학생들은 순종의 인산일을 기회로 만세 운동을 계획하였다(1926). 그러나 사회주의자들이 추진한 계획은 사전에 발각되었다.

그러나 학생 단체들을 중심으로 한 시위 계획은 예정대로 진행되어 순종의 국장일인 6월 10일, 학생들은 일제 경찰의 삼엄한 경비를 뚫고 장례 행렬을 따라가며 서울 시내 곳곳에서 만세 시위를 벌였고, 많은 시민들이 합세하였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전국 곳곳의 학생들도 동맹 휴학 투쟁을 벌여 호응하였다.

6·10 만세운동은 전국적인 시위로 확대되지는 못했지만, 일제 타도를 위한 구체적 실천 노선을 제시했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 당시 격문에는 ‘일체의 납세를 거부하라!’, ‘일본인 공장의 직공은 총파업하라!’, ‘일본인 지주에게 소작료를 바치지 마라!’ 등 민중이 실천해야 할 경제투쟁의 지침이 제시되어 있다.

또한, 운동의 준비 과정에서 조선 공산당 등 사회주의 세력과 천도교 등 민족주의 세력이 연대함으로써 민족 유일당을 결성할 수 있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①, ⑤ 3·1 운동(1919)은 우리 민족에게 독립의 희망과 자신감을 가지게 하고, 국내외에 민족의 주체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수립과 국외 항일무장 투쟁, 사회주의와 여성 운동 등 다방면의 민족 운동이 전개되었을 뿐 아니라, 세계 약소 민족의 독립 운동(중국의 5.4 운동, 인도의 반영 운동 등)에 큰 자극이 되었다. 또한 일제의 통치방식을 기만적이긴 하지만 유화적인 문화통치로 바꾸게 하였다.

②, ④ 1929년 11월, 전남 나주역에서 한·일 학생 간의 충돌 사건(일본 남학생의 한국 여학생 희롱)을 계기로 일어난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은 신간회의 지원(진상조사단 파견) 속에 전국 각지로 확산되어, 3.1 운동 이후 최대의 민족 운동이었다.

44. 밑줄 그은 '이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 ① 김구에 의해 상하이에서 조직되었다.
- ② 조선 혁명 선언을 활동 지침으로 하였다.
- ③ 김상옥, 김익상 등이 단원으로 활동하였다.
- ④ 복벽주의를 내세우며 의병 전쟁을 준비하였다.
- ⑤ 신흥 무관 학교를 설립하여 독립군을 양성하였다.

정답: ①

* 한인애국단

1920년대 후반 이후 침체기에 빠진 임시정부에 활기를 불어 넣고, 만보산 사건(일제의 술책으로 1931년 7월에 있었던 만주지역 한,중 농민의 유혈충돌)과 만주 사변(1931년 9월에 있었던 일제의 만주 침공. 일제는 이후 이 지역의 조선인을 우대하고 중국인을 비하하는 정책을 펼쳐 반한감정이 고조되었다) 등으로 중국인들의 반한 감정이 고조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김구는 1931년 10월 한인 애국단을 결성하여 적극적인 의열투쟁을 전개하였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이봉창이 도쿄에서 일본 국왕에게 폭탄을 투척한 사건(1932.1)과 홍커우 공원에서 있었던 윤봉길의 폭탄 투척이었다(1932.4). 특히 윤봉길 의거는 중국인들에게 큰 감명을 주어 중국 국민당 정부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인정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는 차후 한국광복군 탄생의 바탕이 되었다.

②, ③ 김원봉이 1919년 11월 만주 길림성에서 조직된 의열단은 신채호가 1923년 작성한 조선혁명선언(일명 의열단 선언)을 지침으로 직접적 투쟁방법인 암살과 파괴·테러라는 과격한 방법을 사용하였다. 이에 따른 김상옥(1923, 종로경찰서 폭탄 투척), 김익상(1921, 조선총독부 폭탄 투척), 나석주(1926, 동.척과 식산은행 폭탄 투척) 등의 의거가 대표적이다.

④ 임병찬이 1912년 조직한 독립의군부는 고종의 밀지에 따라 의병을 모으고, 총독부에 국권반환요구서를 제출하며 대한제국을 재건하고자 하는 복벽주의를 추구하다 발각되어 해체되었다(1916).

⑤ 서간도 지역에서 신민회(1907~1911) 회원들이 독립군 양성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 회영, 이상룡 등이 중심이 되어 삼원보에 민족 운동 단체인 경학사를 조직하고 신흥 강습소(후일 신흥 무관 학교)와 같은 군사 간부 양성소를 설치하였다(1911).

45. 다음 자료가 발표된 시기를 연표에서 옳게 고른 것은? [2점]

1. 조선의 민주 독립을 보장한 삼상 회의 결정에 의하여 남북을 통한 좌우 합작으로 민주주의 임시 정부를 수립할 것
4. 친일파 민족반역자를 처리할 조례를 본 합작 위원회에서 입법 기구에 제안하여 입법 기구로 하여금 심리 결정하여 실시케 할 것
7. 전국적으로 언론, 집회, 결사, 출판, 교통, 투표 등 자유를 절대 보장하도록 노력할 것

1945. 8.	1945. 12.	1946. 3.	1947. 5.	1948. 5.	1950. 6.
(가)	(나)	(다)	(라)	(마)	
광복	모스크바 3국 외상 회의	제1차 미·소 공동 위원회	제2차 미·소 공동 위원회	5·10 총선거	6·25 전쟁
① (가)	② (나)	③ (다)	④ (라)	⑤ (마)	

정답: ③

* 좌우합작 7원칙(1946.10)

한국의 임시정부 수립을 위한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1945.12)에 결정에 따라 1차 미·소 공동 위원회(1946. 3~5)가 열렸으나, 미·소 양국이 우호적인 단체를 내세우기 위해 대립하며 무기한 중단되었다.

이에 이승만은 남한만이라도 정부를 수립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치고(정읍 발언: 1946.6) 지지 세력을 모아갔다.

이에 김규식(중도 우파)과 여운형(중도 좌파) 등은 분열된 정국을 통합하기 위해 좌우 합작 운동을 벌이고, 모스크바 3국 외무장관 회의의 결정에 따른 통일 임시 정부 수립을 위해, 미·소 공동 위원회 참가 후 신탁 통치 문제 해결, 유상 매상과 무상 분배 원칙하의 토지 개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좌우 합작 7원칙을 발표하였다(1946.10).

<좌우합작 7원칙>

1. 모스크바 3국 외상 회의 결정에 의해 좌우 합작으로 임시 정부를 수립할 것.
2. 미·소 공동 위원회 속개를 요청하는 공동 성명 발표
3. 몰수·유(有)조건 몰수 등으로 농민에게 토지 무상 분여 및 중요 산업 국유화
4. 친일파, 민족 반역자 처리 문제는 장차 구성될 입법 기구에서 처리할 것.
5. 남북 좌우의 테러적 행동을 일체 제지하도록 노력할 것.
6. 입법 기구의 구성 방법 및 운영 등은 본 합작 위원회에서 작성, 적극 실행할 것.
7. 전국적으로 언론, 집회, 결사, 출판 등의 자유를 절대 보장할 것.

좌우합작 7원칙에 대해 좌우합작과 민족통일을 중시하는 중도파와 김구 등은 찬성하였고, 단독정부 노선을 취하는 이승만과 한국민주당, 그리고 박헌영 등의 급진적 좌익 측은 좌우합작 운동에 반대하였다.

한편 미 군정은 중도 노선을 지향하는 이들의 활동을 지원하였다. 미 군정은 통일 정부가 수립될 때까지 과도적 준비를 하는 기구인 남조선 과도 입법위원을 발족시켰다(의장: 김규식, 민정장관: 안재홍).

그러나 1947년 미국무부의 '트루먼 독트린' 발표 이후 냉전이 심화되며 미군정의 지원이 철회되고, 여운형의 암살(1947.7)과, 2차 미·소 공동 위원회(1947. 5.~10.)가 또다시 협의의 대상을 둘러싸고 대립하다가 결국 결렬되며, 운동은 실패하였다(1947.12).

46. 다음 인물의 활동으로 옳은 것은?

[2점]

【이달의 독립운동가】

**민족의 계몽과 독립에 헌신한
남강(南岡) ○○○**

●생몰 연대: 1864년 ~ 1930년

●주요 활동

- 신민회 가입
- 자기(磁器) 회사 설립
- 태극서관 경영
- 105인 사건으로 옥고를 치름
- 3·1 운동 당시 민족 대표 33인 중 기독교 측 대표로 활동

●서훈 내용

1962년 건국 훈장 대한민국장 추서



- ① 민족 교육을 위해 오산 학교를 설립하였다.
- ②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대통령으로 활동하였다.
- ③ 서유견문을 집필하여 서양 근대 문물을 소개하였다.
- ④ 국문 연구소를 세워 한글의 문자 체계를 정리하였다.
- ⑤ 헤이그에서 열린 만국 평화 회의에 특사로 파견되었다.

정답: ①

* 민족주의 기업인, 교육가 이승훈

신민회는 안창호(1878~1938), 양기탁(1871~1938), 이승훈(1864~1930) 등의 사회 각계각층의 인사를 망라하여 조직된 비밀 결산였다.

신민회는 국권의 회복과 공화 정체의 국민 국가 건설을 목표로 삼고, 국내에서는 문화적 경제적 실력 양성 운동을 전개하면서 국외에서는 독립군 기지의 건설에 의한 군사적 실력 양성(서간도 삼원보: 경학사, 신흥강습소->신흥무관학교)을 꾀하다가 한일병합 이후인 1911년, 105인 사건(데라우치 총독 암살 미수사건이 날조되어 신민회 회원과 관련이 있는 안악사건으로 확대되어 105인이 기소된 사건).

관련 활동으로 언론으로는 양기탁의 대한매일신보, 교육으로는 안창호의 대성학교(1908, 평양), 이승훈의 오산학교(1907, 정주) 등이 있으며 산업으로도 이승훈이 평양의 자기회사, 대구의 태극서관 등을 설립하였다.

②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대통령을 역임한 사람은 이승만(1875~1965)과 박은식(1859~1925) 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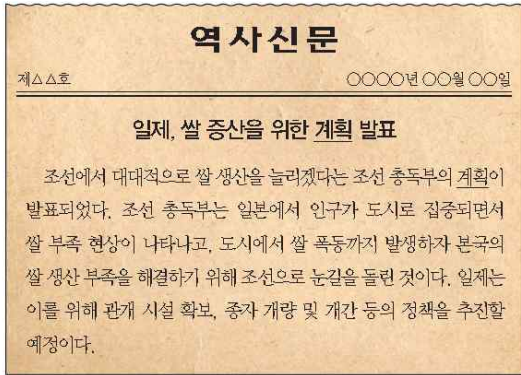
③ 개화파 인물 유길준(1856~1914)에 의해 간행된 서유견문(1895)은 서구 문물을 소개하며 국·한문 혼용체 보급에 기여하였다.

④ 1907년 학부 안에 국문 연구소가 만들어져 지석영(1855~1935), 주시경(1876~1914) 등의 주도로 국문의 정리와 국어의 이해 체계가 확립되기 시작 하였다.

⑤ 고종의 밀명을 받아 1907년 헤이그 특사로 파견된 사람은 이상설(1870~1917), 이준(1859~1907), 이위종(1887~?) 3인이다.

47. 밑줄 그은 '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 ① 농광 회사가 주도하여 추진하였다.
- ② 추진 과정에서 수리 조합 반대 운동이 일어났다.
- ③ 태평양 전쟁 이후 군량미 조달을 위해 시작되었다.
- ④ 하와이 노동 이민이 공식적으로 시작되는 배경이 되었다.
- ⑤ 함경도와 황해도에서 방곡령이 선포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정답: ②

* 산미증식계획(1920~1934)

1차 세계대전을 계기로 일본은 공업화가 진전되고 도시 인구는 크게 늘었지만 농업 생산력은 이에 미치지 못하여 쌀값이 폭등하였다. 이에 일제는 한국에서 산미증식계획을 실시하여 식량부족 문제를 해결하려 하였다.

품종 개량, 수리 시설 구축, 경지 정리, 개간 등을 통해 쌀의 증산을 위해 노력했지만 증산량은 계획에 미치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쌀 반출은 예정대로 진행되어 일본의 식량 사정은 개선되었지만 국내 식량 사정은 크게 나빠졌다. 일제는 한국 내 부족한 식량을 만주에서 조·수수·콩 등의 잡곡을 들여와 보충하였다.

한국 농민들은 고을 소작료뿐 아니라 지세, 공과금, 비료 대금, 수리 조합비, 토지 개량비 등 쌀 증산 비용마저 부담하는 이중적 수탈 구조 속에 놓이게 되었다. 반면, 토지 회사나 대지주들은 농민들의 곤궁한 처지를 이용하여 대농장을 더욱 넓혀 갔다. 그 결과 많은 자작농이 소작농으로 전락했고 화전민·토막민이 되거나 만주, 연해주, 일본으로 이주하는 농민들도 늘어났다.

생존의 위협에 직면한 농민들은 광범위한 수리조합 반대운동과 생존권 사수를 위한 소작쟁의를 전개하였다. 이에 비해 지주층은 쌀 수출로 더 높은 수익을 올렸고, 산미 증식계획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기업인들의 이익도 증진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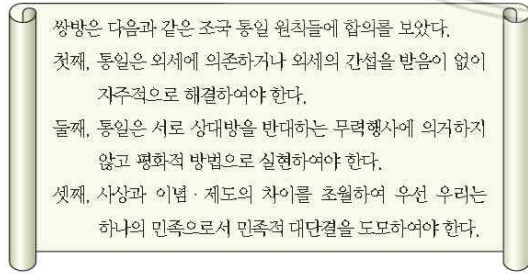
① 1904년 6월 일제가 토지 약탈을 위해 황무지 개간을 요구하자, 이를 저지할 목적으로 7월에 보안회와 농광회사가 설립되었고, 8월에 이를 무산시켰다

③ 중일전쟁 이후 군량미 조달을 위해 시작된 미곡공출(1940)은 태평양 전쟁(1941.12) 이후 더욱 확대 되어 자가소비를 제외한 모든 부문으로 확대되었다.

④ 우리나라 최초의 이민은 1902년 미국 하와이 농장주들이 노동자를 구하기가 어렵게 되자, 대한제국 정부에 한국 농민의 이민을 요청하고, 이에 응하면서 시작 되었다.

⑤ 1889년과 1890년 일본에서는 대흉작으로 쌀 소동이 일어났다. 조선에서도 흉작으로 식량이 부족해지자 함경도, 황해도 관찰사가 조·일 통상 장정의 규정에 따라 곡물의 일본 수출을 금지하는 방곡령을 내렸다.

48. 다음 성명을 발표한 정부의 통일 정책으로 옳은 것은? [2점]



- ① 남북 조절 위원회를 구성하였다.
- ② 금강산 관광 사업을 실시하였다.
- ③ 개성 공단의 설치에 합의하였다.
- ④ 최초로 남북 정상 회담을 개최하였다.
- ⑤ 한반도 비핵화 공동 선언을 채택하였다.

정답: ①

* 박정희 정부와 7.4 남북공동 선언(1972)

남북 간에 통일에 대해 합의된 문서는 3가지가 있다.

7.4 남북 공동 선언(1972): 1970년대에 들어와 닉슨 독트린(1969, 미국의 불개입주의 천명) 발표 이후 냉전 체제의 완화, 남한의 경제 발전 등 국내외 여건의 변화에 따라 박정희 정부는 남북 교류를 제의하고(1970년 8.15. 선언, 남북한 선의의 경쟁), 남북 간에 이산 가족 찾기 운동을 위한 적십자 대표의 예비 회담을 열었다(1971.9~1972.8). 또, 서울과 평양에서 7.4 남북 공동 성명이 동시에 발표되었다(1972).

이 성명은 분단 이후 처음으로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의 통일 원칙을 내세운 것으로, 이후 통일 논의의 기본 원칙이 되었다. 이 발표로 남북 관계는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어 직통전화(핫라인) 가설과 남북 조절 위원회가 설치되었다.

그러나 선언 직후 박정희 정부는 10월 유신을 선포하여 장기 집권을 꾀하였고, 북한도 사회주의 헌법을 개정하여 유일 지도 체제(주석 체제)를 더욱 강화하였다.

남북 기본합의서(1991): 노태우 정권기인 1990년대에 들어와 급격한 국제 정세의 변화 속에서 남한의 적극적인 북방 외교 정책이 추진되었다. 남북한은 동시에 유엔에 가입하였으며(1991.8), 남북 고위급 회담이 열리고, 문화, 체육의 교류도 이루어졌다.

곧이어 남북 간의 잠정적이고 특수한 관계를 인정한 남북 기본합의서(1991.12)와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 선언(1992.1)이 채택되기도 하였다.

6.15 공동 선언(2000): 1998년에 김대중 정부가 들어선 이후 정부와 민간 차원의 교류가 크게 확대되었다. 마침내 최초로 평양에서 정상 회담(김대중-김정일)이 이루어져 6.15 남북 공동 선언이 발표되었다(2000).

이 선언에서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하고,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여, 앞으로 이 방향에서 자주적으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이러한 김대중 정부의 대북화해협력 정책에 힘입어 금강산 관광 사업(1998), 경의선 철도 연결 사업(2000~2002), 개성 공단 건설(2000년 합의, 2004년부터 입주, 현재 중단), 이산가족 상봉 등이 실현되어 남북 간의 긴장 완화와 화해 협력이 진전되었다.

49. 다음 명령을 발동한 정부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1점]



- ① 제1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이 추진되었다.
- ② 경제 협력 개발 기구(OECD)에 가입하였다.
- ③ 미국과 자유 무역 협정(FTA)을 체결하였다.
- ④ 제2차 석유 파동으로 경제 불황이 심화되었다.
- ⑤ 원조 물자를 가공하는 삼백 산업이 발달하였다.

정답: ②

* 금융실명제를 실시한 김영삼 정부의 정책

김영삼 정부(1993.2~1998.2)는 5·16 군사 정변 이후 31년 만에 들어선 민간 정부(문민정부)임을 강조하며 개혁을 단행하였다.

경제적으로는 탈세와 부정부패를 뿌리 뽑기 위해 금융 실명제를 실시하였다(1993).

그러나 성급하다는 반대에도 불구하고 세계화를 내세우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1996)하는 등 시장개방 정책을 실시했으나, 임기 말에 외환위기를 맞아 국제 통화 기금(IMF)에 의존하게 되었다(1997.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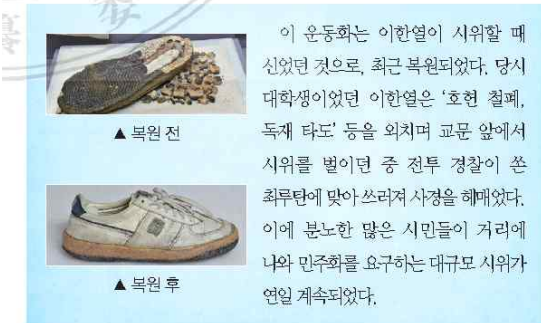
① 1962년부터 박정희 정권의 강력한 주도에 새로 수립된 1.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추진되었다. 박정희 정부는 정부 주도, 수출 위주의 성장 전략을 추진하면서 대기업을 육성·지원하였다.

③ 2000년대 노무현 정권 이후로 한국-칠레 자유무역협정(2004), 한미자유무역협정(2007년 일부 분야 한정 체결, 재협상 후 2012년 이명박 정부 때에 발효)이 체결되며 세계 무역강국으로 부상하였다.

④ 박정희 유신정권 말기 2차 석유 파동(1978~1980)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던 우리 경제는 전두환 정부가 중복 투자와 부실기업을 정리하고, 금융 시장 일부를 개방하면서 다시 회복되었다.

⑤ 이승만 정권기인 1950년대 경제는 미국의 원조 경제에 기반을 두고, 주로 식료품, 농업 용품, 피복, 의약품 등 소비재와 면방직, 제당, 제분 공업(삼백산업)의 원료에 집중되어 발달하였다.

50. 다음 자료를 통해 알 수 있는 민주화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 ① 신군부의 비상 계엄 확대가 원인이 되었다.
- ② 3·15 부정 선거에 항의하는 시위에서 시작되었다.
- ③ 관련 자료가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으로 등재되었다.
- ④ 5년 단임의 대통령 직선제 개헌이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었다.
- ⑤ 국민들의 요구에 굴복하여 대통령이 해야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정답: ④

* 6월 민주항쟁(1987)

대통령 간선제 헌법과 전두환 정부(1980~1987)의 강압적인 통치하에서도 계속된 민주화 요구는, 1987년 박종철 고문 사망 사건과 4·13 호헌 조치를 계기로 6월 민주항쟁으로 발전하였다.

직선제 개헌과 민주 헌법 제정을 요구하는 이 시위는 연세대생 이한열의 사망으로 더욱 격화되어 전국적으로 확대되었다(6월 민주항쟁).

결국, 정부는 국민의 민주화 요구를 수용하여 6·29 민주화 선언을 발표하였고(당대표 노태우 발표), 여야 합의에 의해 5년 단임의 대통령 직선제를 골자로 하는 새 헌법이 마련되었다(현행 헌법).

①, ③ 1980년 군부의 5.17 비상계엄 확대가 원인이 되어 발발한 5.18 광주민주화운동은 신군부가 공수부대 등을 동원하여 무력으로 진압하자, 이에 격분한 학생과 시민들이 시민군을 결성하여 시가전을 벌였다. 비록 5·18 민주화 운동은 비록 좌절되었지만 1980년대 이후 우리나라 민주화 운동의 밑거름이 되었고, 2011년 5월 5.18 광주민주화 운동 관련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다.

②, ⑤ 1960년 3.15 정·부통령 부정선거가 원인이 되어 발발한 4.19 시민혁명으로 결국 이승만은 대통령에서 하야하고(4.26) 하와이로 망명하였다.